내년 최저시급 6030원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10일 금요일 제3255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9일>

코스피 2027.81 (+11.60)

코스닥 726.01 (−0.21)

금리(국고채 3년) 1.80 (−0.01)

환율(원·달러) 1133.20 (−3.50)

상하이종합지수 최근 7개월 새 추이.

중국 산 블랙스완

증시 폭락 '차이나 리스크' 엄습 "일시적 냉각" vs "경제 붕괴 시작"

중국 주가지수가 사흘만에 크게 반등했다. 그러나 예상못한 대형악재(블랙스완)의 향후 파장에 대해 전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9일 상하이종합지수는 2.1% 하락한 3432.45로 출발했지만, 중국당국의 추가 부양책 소식에 상승 전환해 5.76%(202.14포인트) 급등한 3709.33으로 마감했다. 홍콩증시도 중국 증시 반등의 영향으로 3.73% 급등했다.

이날 급반등은 중국 금융당국이 추가급락을 막기 위해 부양책을 내놓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신용거래로 주식을 사들인 개인투자자에게 대출기한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 금융당국은 8일에도 상장기업 대주주와 임원들이 6개월내 지분을 팔지 못하게 하는 등 6개항의 증시 안정 대책을 제시했었다.

또 지수 3500선은 바닥권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중국 증시는 올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지난달 12일 상하이지수가 5178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3주 연속 금요일마다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을 연출하고 하루 3% 이상 급락하는 날도 속출했다. 그러는 동안 상하이종합지수는 8일까지 31.6%나 하락했다. 다행히 9일 큰 폭으로 반등함으로써 폭락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국 증시의 폭락을 초래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불법 장외신용융자가 과도하게 늘어나자 중국당국이 이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불법 장외신용융자액은 약4400억위안에 이른다. 장외신용은 연 10~12%의 고금리를 받고 보증금의 10~15배 대출을 해준다. 과도한 신용규모 때문에 거대한 부실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축소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기업공개(IPO) 재개, 그리스사태와 미국 금리인상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유보적 자세, 기업가치에 비해 너무 비싸진 주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정부가 추진해온 사실상의 양적완화 정책도 증시과열을 부추겨왔다.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고정투자로 부동산 거품에 이어 주식시장에도 거품이 형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세계경기 회복지연으로 말미암아 수출경기가 타격을 받고 기업의 수익성도 저하되는 등 기초체력에도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눈에 띈다.

9일 반등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관측도 제시되지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하다는 증거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정하늘 연구원은 "9일 주식 신용거래 기한을 고려해 볼 때 상하이지수가 3200선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증시의 거품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마켓워치는 "붕괴는 이제 막 시작됐다"며 상하이종합지수가 1700대, 심지어는 15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의 경제는 안정적"이라면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일 쏟아냈다. 증권시장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한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8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비효율적 사용이나 규정 위반으로 회수된 자금 2500억여 위안(약 45조6000억원)을 '긴급영역'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재정적자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하는 1조6200억위안으로 늘기로 했다. '7% 안팎'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최근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금융시장에 850억 위안(1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지난달 28일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성장률이 7.0%로 더 낮아졌다. 2분기에는 7%를 밑돌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올해 성장률 7%선을 지키기 위해 재정금융정책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률 7%선 확보여부가 향후 중국증시 안정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차기태기자 folium@metroseoul.co.kr

삼성 국수주의 마케팅?

"합병, 국익위한 결정 기대" vs "외국자본 배척, 위험한 논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 삼성그룹측이 벌이고 있는 '국익마케팅'이 장기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결전의 날'(17일 합병 주주총회)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합병 찬성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반대는 국익에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론을 편가르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

삼성 측은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양사의 합병이 성사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 10.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입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치훈(사진) 삼성물산 사장은 "국민연금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 주주가치 제고, 국익을 위한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사장의 발언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 투자자의 반감을 키울 위험성이 높다. 민간기업의 합병문제를 국익으로 포장하는 분위기는 대한민국 전체를 국수주의 국가로 보게 해 향후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소액주주운동 진영에선 이같은 '해외자본은 투기자본'이라는 이분법이 자칫 '국수주의 마케팅'으로 흐를까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일부에서 이른바 '애국심에 호소한 마케팅'을 부추기는 데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이 합병 비율을 문제삼고 있는 만큼 단순히 시세차익만 남기고 돌아갈 가능성은 적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엘리엇의 자산규모는 290억 달러(29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매입에 투입한 6000억~7000억원을 몇 년씩 묻어둬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면서 "10~20%의 차익을 바라고 싸움을 시작했을 리도 없다"고 말했다.

삼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보다 진실성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성운기자 ysw@

박지원, 의원직 상실 위기

2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금고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부분과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문철 전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며 "3000만원은 작은 금액이 아니며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홍원기자 hong@

한줄 News

▲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추경의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 서울고법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묵언'이다, 애당심으로 협조 바란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퇴진 사태를 거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 감사원은 직원 두 명이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된 후 자체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예측한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조선인 강제노역을 반영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일본이 성실한 후속조치를 통해 양국관계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추락하던 중국 증시가 9일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책으로 사흘만에 급등세로 돌아섰다. 중국 당국이 공안부까지 출동시키는 등 총력전을 펴 증시 폭락을 막았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2% 가량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5.8% 급등한 3709.33으로 장을 마쳤다.
▲ 그리스가 자국의 운명을 가를 구제금융 협상안을 9일(이하 현지시간) 제출하기로 했다. 국제 채권단에 내놓을 개혁안에 따라 협상이 재개될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지 갈릴 전망이다.
▲ 한진이 대한항공 지분 7.95%(579만2000여주)를 증권사를 통해 '블록딜'로 매각하려 했으나 중국증시 폭락의 여파로 불발됐다.
▲ 현대중공업은 덴마크 해운사인 머스크라인으로부터 1만4000TEU(1TEU는 6.1m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을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 현대자동차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앞좌석 안전벨트 잠금장치(버클) 문제로 쏘나타 약 14만대를 리콜한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에 네이버가 올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6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현대자동차 2위, 금호아시아나그룹· SK그룹이 공동 3위였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주요 30대그룹 사장단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조찬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 최근 서울 시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의 용의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들은 10대 오토바이 배달원들이었다.
▲ 9일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메르스 여파로 매출이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종로1길 중학천 주변 보행로 약 220m 등 대형건물 주변 2개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영국 복지국가에 마침표

높은 임금·낮은 세금·낮은 복지로 전환… 생활임금 1만5000원대로

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내각이 복지국가에 마침표를 찍는 재정정책을 발표했다.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로의 급진적 노선 변화다.

8일(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복지지출의 대폭 삭감, 최저임금 인상, 세금 인하 방침을 밝혔다. 복지지출은 향후 5년간 120억 파운드(약 21조200억원)를 삭감한다. 이에 따라 주택, 육아 등 각 분야의 복지가 축소된다. 여기에 더해 탈세 근절, 정부 부처 예산 축소 등을 통해 총 370억 파운드(약 64조6500억원)를 절약할 계획이다. 5년간 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2020년에는 흑자를 바라본다는 구상이다.

이같이 복지지출을 줄이는 대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연봉의 소득세 면제 구간을 확대하고 최저임금도 인상한다. 소득세가 면제되는 최저연봉의 상한선은 1만1000 파운드(약 1922만원)로 올린다. 생활임금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내년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7.2파운드(1만2580원)다. 생활임금은 2020년까지 9 파운드(1만5740원)로 올릴 방침이다. 현재 21세 이상 영국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5 파운드(1만1360원)다. 복지를 줄이는 대신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다.

법인세율 역시 현행 20%에서 2017년 19%, 2020년 18%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기업에 대해서 낮은 세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마디로 국가역할의 축소다. 보수당이 오랜 시간 추구해 온 노선의 윤곽을 오스본 장관이 이번에 제시한 셈이다. 오스본 장관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는 무책임한 시대를 뒤로 하고 떠났다"고 말하자 보수당 의원들은 환호했다. 오스본 장관은 "영국이 거의 반세기만에 흑자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 디폴트 위기도 영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스본 장관은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를 의원들에게 상기시키며 국가의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너무 많은 돈을 빌리고 있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세계경제심장 뉴욕증권거래소 4시간가량 거래 중단 8일(현지시간) 오전 11시32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예고 없이 거래가 중단된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페더럴 홀의 조지 워싱턴 동상(왼쪽)이 대형 성조기로 덮인 NYSE 기둥들을 지켜보고 있다. NYSE는 3시간38분 만인 오후 3시10분부터 거래가 재개되며 정상을 되찾았다. 이날 오전 비슷한 시간대에 NYSE와 유나이티드항공,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컴퓨터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 미국 수사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다. 증권거래소 측은 해킹은 아니라고 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어중간한 인상'

지자체 생활임금제 대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영세업체나 임금을 받는 근로자나 모두 불만이 가득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고민한 결과'라고 평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9일 "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서도 최대한 인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노동계는 부족하다고 하고 경영계는 부담스럽다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지금은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한 때"라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큰 간극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인상폭 8.1%는 지난해 7.1%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며 "노동계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당이 주장해 온 최소 두 자릿수 인상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될 최저임금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계약 없이 임금을 정해 통보하는 노예계약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월 환산 126만원으로 이는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가구 평균 가계지출 금액인 166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낮은 최저임금에 생활임금제 도입에 나서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성남시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충해 주겠다는 발상이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성남시는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윤정원기자 garden@

혈세 돌려주느니 대기업에 퍼주겠다?

메르스·가뭄 추경안, 대기업 위해 준조세 전력기금 투입
기금 남아돌자 발전소 준공일자 임의로 앞당겨 지원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메르스 추경을 편성하면서 준공되지도 않은 발전소에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100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한 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에서 충당한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 3.7%를 추가로 붙는 돈이다. 반드시 내야하니 준조세다. 올해 수입만 거의 4조원에 달한다. 수입은 늘어나는데 쓸데가 없어 방만한 운영이 계속 돼 말썽이 되고 있다. 이번 추경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다. 혈세를 국민에게 돌려주느니 차라리 대기업에 퍼주겠다는 심보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발전소특별지원금 1500억원을 포함시켰다. 올해 발전소특별지원금 규모는 1184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추경을 포함하면 71개 발전소에 모두 2684억원이 지원된다.

추경 발전소특별지원금 1500억원은 소외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교육·문화·의료시설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명목이다. 이번 추경의 취지인 메르스·가뭄피해 대책과는 무관하지만 정부는 자료에서 서민생활 안정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공되지도 않은 발전소에 지원금이 나간다는 게 문제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원대상인 발전소 중 올해 준공되는 발전소는 41개로 지원금은 51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30개 중 2016년 준공은 11개로 456억원, 2017년 준공은 19개로 533억원에 달한다.

특히 일부 발전소는 예정된 준공시기와는 달리 올해 준공되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삼척그린파워 1, 2호기는 준공일이 내년 6월로 연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말 준공으로 처리해 24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준공되는 OCI-SE발전에 30억원, 대성산업의 오산열병합에 56억원, 이테크건설의 군장에너지에 81억원, 동서발전의 당진화력에 44억원, GS의 북평화력에 44억원, GS의 북평화력에 50억원, 대림의 대우포천에 18억원, 서부발전의 태안 9, 10호기에 178억원을 앞당겨 지원한다.

심지어는 2017년 준공되는 발전소까지 앞당겨 지원한다. SK의 장문복합에 50억원, 중부발전의 신보령에 79억원, 한수원의 신한울과 신고리 5, 6호기에 각각 185억원과 176억원을 앞당겨 지원한다.

발전소 지원에 들어가는 전력기금은 2001년 신설돼 확장 일로에 있다. 올해 사업비는 1조6844억원으로 사용처가 없어 돈이 남아 돌고 있다. 기탁금이 1조5000억원, 여유자금이 1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렇게 남아도는 눈먼 돈을 대기업에 연간 2500억원, 원자력 홍보에 18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9300억원을 넘긴 민간발전소의 민원처리비용으로 1000억원을 지원해주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흥청망청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력기금 요율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유승민, 측근들에게 "총선서 살아남아라"

유승민 대망론… 내년 총선 수도권 출마설도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표직 사퇴 후 측근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다들 잘 돼서 (살아)남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유 전 원내대표는 전날 측 원내대표단 해단식을 겸한 만찬에서 자신을 도왔던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들과 일부 초재선 의원들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그의 미래 행보의 일단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 직후 여권내 차기대권주자 조사에서 김무성 대표에 이어 2위로 위상이 급상승하는 등 보수의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승민 대망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대구를 벗어나 수도권에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공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 생존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송병형기자

미코 출신 최송이, 미스월드 브라질 1위

당초 우승자 기혼자로 박탈

2013년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5명의 미스코리아 미 중 한명이었던 최송이(25)씨가 미스월드 브라질 대표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열린 2015년 미스월드 브라질 대표 선발 대회에서 당초 2위에 올랐지만 1위가 우승자격을 박탈당하면서 1위로 올라서게 됐다. 자격을 박탈당한 1위는 기혼자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씨는 올래 12월 중국에서 열리는 미스월드 대회에 브라질 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얻었다. 최씨는 카타리나 쇼이 누네라는 브라질 이름으로 출전한다.

최씨는 2013년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미스코리아 브라질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그해 서울에서 열린 미스코리아 대회에 브라질 대표로 참가해 입선했다. 이후 국내 TV 방송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송병형기자

새정치, 메르스병원 지원 두고 '포퓰리즘' 격론

정부 선심추경 '싹둑'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추경안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언성을 높이며 격론을 벌였다. 원내 투톱인 두 사람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병원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충돌했다.

9일 열린 비공개 정책조정회의에서 강 의장은 정부의 2배인 2000억원으로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그 역시 부족하다면서 4000억원까지 올리자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메르스 병원 지원규모를 설정할 때 구체적인 근거 없이 금액만 높이면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반박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추경의 취지에 맞춰 보다 정확하게 피해규모를 추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는 강 정책위의장에게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왜 2000억원만 했느냐"며 "제대로 조사 안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 의장은 "왜 잘, 열심히 준비한 걸 못 믿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이 원내대표도 "왜 소리를 지르느냐"며 반박했다.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격론에도 의견이 모이지 않자 회의는 곧 종료됐다. 이로 인해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추경안 발표를 오후로 연기해야 했다. 메르스 병원 지원규모는 보완·조정작업을 거쳐 3000억원대로 결론났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자체 추경안 금액은 6조2000억원 규모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제시한 1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은 근본적 확충방안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려고 일부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린 것이라며 전부 삭감하기로 했다. 세출 추경인 6조2000억원에 대해서도 도로·철도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 1조5000억원을 줄였다. 메르스 피해지원과 공공 의료체계 개선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강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포퓰리즘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드러냈다. 그는 자체 추경안 중 온누리상품권 지급 사업이 포퓰리즘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가 보조금 환급시 저소득층이 환급을 많이 받아간 불균형이 있었는데 저소득층에 상품권 주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솔직히 고민했다.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2016 고성공룡엑스포' 내년 4월1일 개최 지난 2006년부터 3차례 개최된 경남 고성 공룡엑스포가 내년 4월 1일부터 73일동안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당항포관광지와 특별행사장인 상족암 군립공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시급 6030원

8.1%올라… 月 126만270원
노동계 "기대 턱도 못미쳐" 총파업 등 강력 투쟁 예고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김서이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檢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소환 예정

검찰이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박기춘(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다음 주쯤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이 김모(44·구속)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에게서 명품시계 여러 점과 억대 현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기춘 의원의 동생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후 박기춘 의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취재진에게 "박 의원의 출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의 출석 의사 등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으면 국회 일정 중에도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임시국회 일정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 박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의 이 같은 의견이 전해지자 소환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미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도 박 의원의 친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분양대행업체인 I사는 2008년 설립 후 40여건의 사업을 따내며 급성장했다. 검찰은 이 배경에 박의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건네진 금품이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홍원기자

모발이식 받다 식물인간… 7억 배상 판결

모발이식 수술을 위해 마취를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은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교수였던 A씨는 머리숱을 늘리기 위해 2013년 1월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당시 이씨는 A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했다. 이어 모발이식을 위해 뒤통수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러나 절제부위 부분의 지혈과 봉합을 할 때, A씨의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져 즉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게 했다. 하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A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에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감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는 환자의 손가락에서 측정기가 빠져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산소포화도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용량과 투여방법에는 문제가 없었고,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A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어 보인다"며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홍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새만금 담합' SK건설에 벌금 8000만원

法, 전·현직 임직원 7명도 400만~2000만원 선고

법원이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SK건설 법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건설에 대해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모(55) SK건설 수도권본부장, 백모(51) 대우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 등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며 "이들의 범행 정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SK건설 등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SK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입찰가격에 대해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건설은 낙찰 받은 목적으로 대우건설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웠다. 또 대우건설은 설계점수를 일부러 낮게 받기 위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 자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SK건설은 코오롱글로벌, 금광기업과도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사금액의 99% 정도로 사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찰 당일 서로 직원들을 상대방 회사로 보내 담합한 투찰가로 응찰하는지를 감시하기도 했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SK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아 지난 3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검찰이 기관 간 협조 차원에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홍원기자 hong@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징역·금고형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금고 등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또 부실한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씨는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징역형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노동을 하지만 금고형은 수감생활만 하고 노동은 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체육관 붕괴 사고가 발생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던 부산외대 학생 10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이씨 등 11명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체육관 붕괴 사고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홍원기자

“기본권 침해” vs “병역 제도 혼란”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헌재, ‘병역법 88조’ 두 차례 ‘합헌’ 결정… 열띤 공방

기본권 침해냐, 병역 제도 혼란이냐. ‘병역법’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명의 헌재 재판관들과 위헌, 합헌 측 참고인, 일반 방청객들이 몰려 뜨거운 격론의 장이 펼쳐졌다.

위헌에 불씨를 당긴 조항은 동법 제88조 제1항. 이 조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오두진 변호사는 “절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과 권리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최근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000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여명임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국방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은 권고적 효력에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재판관들도 변론에 참여했다. 앞서 헌재는 논란이 된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병역 의무보다 불이익한 대체 복무라면 또다른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생기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제청인 측은 “유럽에서도 경제적 자유권 침해라는 얘기가 나와 징벌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동감했다. 강 재판관은 또 “이미 사회 복무를 통해 대체 복무의 길이 열려 있다. 입영 대상자수가 수용자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이 형평성에 충돌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사회복무도 크게 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도 거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맞섰다.

이정미 재판관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일반적인 병역 기피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자 제청인 측은 “판사들이 정황 증거로 판단을 하는 것처럼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사회적·반도덕적 의미의 범죄라 볼 수 없고, 비폭력·평화 주의적 행동이며 양심에 따른 진지한 결정”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참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병역기피의 문제는 소수의 병역의무 회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무행정 전반과 병역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병원 상대 첫 손배소

감염병 관리·치료 책임 물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취지는 메르스 감염자·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격리된 피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와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날 경실련은 “국가와 병원 등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이들이 막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173번 환자의 아들 김형지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하루 실소득으로, 유가족과 격리자들은 하루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해 계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73번 환자의 아들 김형지씨는 “방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슈퍼전파자도 없었을 테고, 어머니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동성심병원도 환자의 잘못만 탓하기보다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미납 병원비를 내기 전에는 어머니의 진료기록도 떼지 못하게 한다”며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에 대해 국가 시스템과 민간병원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번 소송이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실련은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홍원기자 hong@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기대반 우려반

공정성 시비 해소 기대
줄 세우기식 문화 우려

9일 오후 3시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 이번 성적 공개로 법조인 선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을 선발했지만 대부분의 합격자가 명문대 출신인데다 70%가 법원에서 근무했던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시험과 같은 줄 세우기식 문화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로스쿨 입학생 유치를 위해 합격률을 내세우며 경쟁하기 때문에 법조인 평가 기준이 시험 성적으로 획일화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사실 지방 로스쿨을 졸업하고 괜찮은 법무법인에 취직 못하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이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명문 대학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로스쿨 상황으로 지켜본다면 성적 공개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적 공개가 가져오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이번 공개는 법조인 선발 공정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열화 됐던 로스쿨 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원기자

‘철거 준비’ 임시벽 세워진 서대문고가차도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고가차도 진입로에 철거를 위해 설치한 임시벽이 세워져 있다. 서대문고가도로는 44년만인 오는 15일부터 철거하는 공사를 시작해 9월 초 개통한다. /연합뉴스

언론에 의한 피해, 어떻게 바로잡나

생활 법률

A씨는 5개월 전 한 신문과 자영업의 어려움을 다룬 기획성 기사 인터뷰에 참여했다.

뒷 모르고 카페 창업을 시도했지만 빚만 떠안게 생겼다고 하소연하며, 2년간의 카페 수입내역서 등을 신문사에 제공했다.

그런데 기사에 반영된 수입 내역서 금액이 잘못 기재돼 한 달 수입이 높게 책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수입이 좋은데도 투덜대는 것처럼 오해를 사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은 것이다.

5개월 전 기사였지만 지금이라도 언론사에 수정 요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받은 A씨는 이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당사자와 해당 언론사가 이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다.

A씨의 경우 기사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면 된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정정 청구 이유, 정정 보도문 등을 명시해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박 주장의 필요성이 들 때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반론 보도를 청구하면 이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 청구에 대한 거부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때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담아야 하며 위법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다만 기사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언론사가 정정·반론 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과 중재를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피해자와 언론사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양측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중재를 하기도 한다.

/연미란기자

이건희, 삼성물산 의결권 행사 가능할까

이 회장 삼성물산 지분 1.41% 보유
주총 후 의결권 논란 가능성 있어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의결권 적법성 여부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과 엘리엇 모두 한 표에 목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장의 의결권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은 1.41%(220만6110주)다.

현재 삼성물산은 이 회장 지분을 포함, 19.78%를 우호지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참석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합병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참석률 70% 가정 시 삼성물산이 필요한 지분은 46.7%다.

삼성물산이 지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 회장의 의결권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1년 넘게 병원에 머물고 있다. 재계 등에서는 아직까지 이 회장 본인이 직접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의 위임·서면을 통해 의결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상법 제368조에는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지능력 등 이 회장의 몸 상태가 정확하게 확인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의 지분을 우호지분에 포함시켜 합병안이 통과될 경우 엘리엇은 이 회장 의결권의 적법성 문제를 꼬투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이 명확한 의사표현 등 이 회장 본인 의지로 의결권을 위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이 모두를 납득시킬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 엘리엇이 이 회장의 건강 상태 확인 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할 경우 삼성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은 이 회장의 의결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 회장은 (의결권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한 상태"라며 "법리 검토도 이미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삼성그룹 계열사 주주총회에서도 이 회장은 포괄적 위임 형태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엘리엇 측은 "이 회장의 의결권 적법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재건축 인접부지 간 용적률 매매 허용

결합건축 등 건축 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
노후도시 기준완화 특별가로구역 지정도

앞으로 역세권 등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명동과 인사동은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가로구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국토부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다.

결합건축제는 인접한 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해당 대지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면 건축주끼리 협의로 대지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는 법정 기준대비 20% 넘게 용적률이 조정될 때는 지자체 건축·도시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이 촉진되고 지역 상권도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투자효과도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산 중구 영주동,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전북 군산시 월명동 등 4곳에서 국토부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주민이 나서 건축협정을 맺은 사례는 아직 없다.

국토부는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높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여러 대지 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조경·지하층·주차장·계단에서 거실·피난시설·정화조 등 모든 건축설비로 확대한다.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 소유한 경우 현재 공유지분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5분의 4만 동의하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다.

공유지분자가 다수인 문중땅이나 공유지분자를 찾을 수 없는 땅에서도 건축협정을 통해 유리한 조건에서 재건축하기 쉬워진다.

건축법 시행(1962년) 전에 조성된 서울 명동이나 인사동 등 노후도심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명동과 인사동은 현행법상 건폐율 60~80%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건물주들이 단속을 피해 건물을 넓히면서 '현실' 건폐율은 100%에 가깝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대행자로 투입, 방치건축물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에 얽힌 권리관계를 조정하게 하고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취득세 35%·지방세 25%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용도변경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안에 4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민간투자자가 개발을 위해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릴 수 있는 기간도 5년 이내에서 최대 50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9일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는 '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 중단 촉구'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홈플러스 노조를 비롯해 장하나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참석해 테스코의 비밀매각을 강력히 비판했다.

홈플러스 매각에 국회까지… 혼란 가중

장하나 "대응단체 설립… 본사 방문도 고려"

테스코(사장 데이브 루이스)의 홈플러스(대표 도성환) 매각에 대해 국회에 변호사단체까지 나서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는 '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 중단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과 홈플러스 노동조합만이 모여 가졌던 지난 두 차례의 기자회견과 달리 이날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까지 모였다.

특히 장하나 의원은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장 의원은 "이미 국회에는 테스코의 비밀 매각에 대한 대응 단체가 만들어 졌다"며 "대응팀이 영국 테스코 본사를 방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전 국회에서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사실을 도성환 대표에게 요구했으나 악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회 대응팀에는 정무위원회·산업통산자원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을지로위원회를 포함해 5명의 국회의원이 대응팀에 참석했다. 참석 의원은 차후 더욱 추가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또 "사모펀드 등 먹튀자본으로 인해 홈플러스 노동자들 삶이 짓밟힐 위기에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방관하는 뻔뻔한 자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를 움직여서라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강문대 민변 변호사도 참석해 홈플러스 비밀매각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도 대표이사도 아니다. 기업의 운명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노동자이다"며 "법이 명시하는 근로조건 승계 등을 위해서라도 노동자는 자사의 매각 절차를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스코의 향후 매각 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매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매각은 반드시 심각한 법적 문제를 낳을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민변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과 홈플러스 노조 김기완 위원장 등은 홈플러스가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비밀매각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테스코는 주식회사이며 주주가 존재한다. 아직 주주총회에서 동의도 얻지 않은 홈플러스 매각을 벌써부터 확신을 가지고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식회사의 사내 자산 매각을 공시도 없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minus@

금강산리조트
창사25주년 특별분양
제주도와 동해바다 금강산까지
395만원에 별장을...
소유권 등기로 안정성, 법인 무기명 카드 발급
그 곳에 가고싶다.
동해안 최북단 해금강으로 가는길..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곳으로 초대합니다.
회원특전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02-541-0113
1. 100% 소유권이전등기
2. 연간 30일 사용
3. 전국 9 지역 리조트 정회원대우 사용
4. 무료숙박 15매 증정
5. 10년후 100% 반환
6. 해외 골프장 회원대우(필리핀세부,중국청도)
신청금 50만원 입금계좌 : 기업은행 244-025348-04-029 ㈜미봉
※신청금 입금순으로 소유권 등기 바닷가 객실 배정합니다.
*본 회원권은 이용권이 아니며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분양승인을 받은 정식 리조트 회원권 입니다.
강원도 고성 금강산리조트(229 객실) 실제 전경입니다.
제주 금강산 리조트
부산 해운대 리조트
도고 리조트
설악 리조트
지리산 리조트
나주 스파 리조트
경주 리조트
금강산리조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3-4 남도빌딩 5층 (주)미봉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02-541-0113

한은, 올 성장률 하향 조정… 기준금리는 동결

<3.1% → 2.8%>

수출부진·메르스 등 영향 국제시장 변동성도 증대

금융안정 정책운용 집중 3분기 이후 회복세 예상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내렸다. 메르스와 그리스사태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데 따른 결정이다.

기준금리는 현재 연 1.50%로 동결했다.

9일 한은은 이주열(사진)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감과 지난 달의 금리인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 등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전달보다 8조1000억원 증가한 59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이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선데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급증세를 보여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더구나 지난달 인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소강세를 보임에 따라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결정도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을 경기살리기에 쏟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수출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의 영향 등으로 소비가 큰 폭 감소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위축됐다"며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과 메르스의 충격 진정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는 금리만으로 해결 할 수 없다"며 "정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올해 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그리스 사태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그리스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그리스 사태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로 기대하고 있는 3.1%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3.9%에서 3.4%로, 지난 4월에는 이를 다시 3.1%로 하향조정 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월에 전망했던 0.9%를 유지했다.

한은에 따르면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가격 상승과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월의 0.5%에서 0.7%로 상승했다.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1%에서 2.0%로 소폭 하락했다.

이 총재는 전망치 하락 요인에 대해 "수출이 부진하고 메르스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라며 "3분기 이후에는 지난 분기의 일시적 충격에 따른 영향이 줄어들면서 완만하지만 다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1분기 해외 카드사용 '역대 최고'

32억1000만 달러… 면세한도 상향 조정 등 영향

올 1분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긁은 카드사용액이 32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1분기 해외카드 이용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 1분기 해외 카드이용 대금은 3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억2000만 달러)보다 13.8% 증가한 규모다.

해외 카드이용 금액은 2013년 2분기(10.9%)부터 8분기째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는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가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출국자가 지난해 1분기 393만 명에서 올해 1분기 470만 명으로 19.4%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연구소는 "저비용국적사와 외항사의 노선취항, 유가하락, 엔저와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했다"며 "다만 거주자의 해외카드이용금액은 출국자 수 보다 환율변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지속된 원·달러환율 상승은 향후 해외카드이용금액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의 카드 승인금액은 작년 동기대비 6.1%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율(6.2%)보다 오히려 0.1%포인트 감소했다.

국내외 카드 사용흐름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22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7% 늘었고, 직불형카드 이용금액은 9억4000만 달러로 9.3% 증가했다.

해외 카드이용 금액에서 신용카드 비중도 71%로 작년 동기보다 4%포인트 올랐다.

업종별로는 통신판매(152.5%)와 음반(78.3%), 여행사·열자표구매(51.0%) 등 해외직접구매 업종에서의 구매액이 급증했다.

한편 국내 비거주자이면서 한국에서 카드를 이용한 실적은 작년 4분기 31억7000만 달러에서 올해 1분기엔 27억6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 카드이용 금액 중 유니온페이 비중은 작년 1분기 51.5%에서 올 1분기에 61.6%로 올라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다.

연구소는 "계절적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장기적 상승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 비거주자의 국내카드이용실적에 메르스라는 부정적 요소가 존재하나, 이는 일시적 요인으로 장기적 상승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백아란기자

NH농협생명, 농촌순회 무료진료 '100회 돌파' (왼쪽부터)김용복 NH농협생명 대표와 구룡농협 최재욱 조합장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농촌순회 무료진료'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NH농협생명 제공

신한은행, 中 충칭에 17번째 지점 개점

신한은행은 9일 중국현지법인인 유한공사(이하 신한중국)가 17번째 영업점인 충칭분행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중국 중서부에 위치한 충칭은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핵심지역이다.

이번에 개점한 신한중국 충칭분행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교민들은 물론 중국 현지 기업과 글로벌 다국적 기업, 현지인 등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충칭분행 개점으로 향후 중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서부 핵심지역에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며 "진행 중에 있는 청두지역 진출과 함께 본격적인 서부지역 공략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충칭분행 개점식에서 조용병 신한은행장(왼쪽부터 여섯번째)과 떵꽝후와이 충칭시 강북구 구청장(왼쪽에서 일곱번째), 대한민국 주중대사관 이호형 재경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조 행장은 "충칭분행이 신한은행의 아시아 금융벨트 전략의 핵심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자산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신한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충칭지역 금융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건설업 수주액 최대치 전망에도 침체기 우려

민간주택 의존도 높아
회복세 단기간 그칠 듯
SOC 예산도 감소 예정

올해 건설수주액이 7년 만에 최대치인 1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민간주택 의존도가 높아 신규주택의 공급과잉 시 또다시 건설업계가 침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은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119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가 시작된 지난 2008년(120조원) 수준이다. 앞서 건설수주액은 지난 2013년 91조3000억원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107조5000억원)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액도 전년 대비 3.0% 증가한 204조3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설업 회복세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건설수주액 증가 대부분이 민간주택에 몰리고 있어 공급과잉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민간 수주는 1년 전보다 17.5% 증가한 7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토목과 공공부문은 각각 2.8%,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수주액 중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3년 60%에서 올해는 65%까지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 SOC 예산이 내년부터 감소할 예정이다. 국가 재정운용계획상의 정부 SOC 예산 계획에 따르면 올해 24조8000억원에 달했던 예산은 내년 22조4000억원으로 감소한다. 이후 2017년 20조7000억원 등 연평균 5.2% 감소할 전망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올해 1~4월 민간 주택수주는 역대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중반 호황기 시절의 수주액을 5조원 가량 훌쩍 넘어섰다"며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한 수치로 평가할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내 건설수주의 회복세가 대부분 민간 주택수주의 회복에 의존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수주 증가율이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거시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공공건설투자 활성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주택·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 기조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갈아타기 부담 줄었다

신규 분양가·기존 매매가 격차 줄어

수도권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는 상승한 반면,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둘 간 가격차가 좁아지면서 기존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비용도 줄게 됐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재건축 제외)의 평균 매매가는 1005만원으로 그해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1143만원과의 138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14년 1039만원과 1097만원으로 격차가 58만원으로 줄었다. 올 들어 상반기에는 1072만원과 1094만원으로 22만원으로 좁아졌다. 전용면적 85㎡ 기준 약 750만원만 추가하면 기존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1.50%로 낮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덩달아 감소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면서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졌다"며 "건설사들도 이런 수요를 겨냥해 3억~4억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올 초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서 수요자들이 이사할 주택 예상가격으로 서울 4억1678만원, 경기도 3억2573만원을 꼽은 점을 감안한 금액이다. 실제 부동산114가 조사한 7월 1주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도 3억7618만원이다.

이에 두산건설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녹천역 두산위브'를 분양하면서 84㎡ 저층 일부의 분양가를 3억9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광주 태전5·6지구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태전'도 84㎡의 가격을 3억6000만~3억9000만원대로 정했다.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첫 분양에 들어간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아파트는 3억원을 전후한 가격으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달 초 반도건설이 공급한 '반도유보라'가 84㎡를 2억8000만~3억2000만원에 분양가가 매겨졌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조만간 분양에 들어갈 일산건영 '휴먼빌', EG건설 'EG the1'도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이 내달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세권에 선보이는 '기흥역 더샵' 또한 3억원대 후분에서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우건설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84㎡는 3억5280만~4억1980만원에 분양됐다.

/박선옥기자 pso9820@

지하철 8호선 '별내선' 2017년 착공… 잠실까지 26분

암사역~별내지구 12.9km 연장… 2022년 준공 계획

오는 2022년 경기 남양주 별내역에서 서울 잠실까지 지하철로 26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약 48분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지구까지 12.9㎞를 연장하는 사업 중 서울시 담당 구간인 1·2공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고 9일 밝혔다.

별내선은 현재 운행 종점역인 암사역(강동구 암사동)을 시작으로 선사로 기존도심지~암사생태공원~고덕동~암사정수장을 거쳐 한강 하부를 통과한 뒤 구리시 구간을 지나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연장된다. 총 사업비 1조2806억원이 투입된다.

시가 발주하는 이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는 ▲1·2공구 토목·궤도·건축·정거장전기·기계설비 분야와 ▲1~6공구 전 구간의 송변전·전차선·신호·통신(정거장 포함) 등 시스템 분야의 기본설계가 포함된다. 이는 2016년 12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이후 시스템 분야의 실시설계를 2017년 상반기 별도로 시행하고, 그해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별내선이 완공되면 지하철 8호선을 타고 송파구 잠실까지 약 26분이 소요, 지금보다 22분 정도가 단축된다. 현재는 별내역에서 경춘선을 타고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차례로 갈아타 약 48분이 걸린다.

/박선옥기자

SK건설, 고용토동부장관상 수상 SK건설의 평성-오성 도로건설 현장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평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권순철(오른쪽 두번째) SK건설 팽성-오성 도로건설공사 현장소장과 관계자들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동해 금강산비치리조트 회사보유분 분양 진행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비치리조트가 회사보유분 50구좌에 대해 특별분양을 진행한다.

동해 금강산 비치리조트 전경

금강산비치리조트는 국내 바닷가 리조트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가장 가깝다.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2010년에는 아시아경제신문 리조트부문 히트상품으로 선정됐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등기제 분양으로 평생 이용은 물론 매매·상속·증여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패밀리형 53㎡ 395만원 ▲스위트형 99㎡ 580만원 ▲165㎡ 980만원이다. 다른 리조트와 비교해 실속 있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으로 거품을 뺐다.

특히 선착순 30명에게는 무료 숙박권 15매,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증정한다. 또 동해 금강산비치리조트 외 제주도와 도고·나주·지리산·경주·부산·설악·덕구 등 전국 8개 지역의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강산비치리조트 정회원이 되면 가입 즉시 가족카드 5매가 발급돼 가족·친지들이 함께 연간 30일을 정회원가로 사용 할 수 있다. 법인으로 가입하면 무기명 카드가 제공돼 사원 후생복지로 사용 가능하다.

회원제로 분양받을 경우 입회 기간은 10년이다. 지불한 금액은 10년 후 100% 반환된다.

신청금 입금 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배정 받아 등기를 진행한다. 신청금은 50만원이다. 기업은행 244-025348-04-029, 문의 02-541-0113

/박선옥기자

신작 줄줄이 대기… 게임株, 대장주 넘본다

| 마켓인사이트 |

하반기 제노니아S 등 출시 임박 게임빌·웹젠 등 11~15% 상승 증권가 "성장동력 충분" 분석

'게임주'가 하반기 신작 출시로 상승 모멘텀(상승 동력)을 이어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그간 쏠림이 집중됐던 제약·바이오주가가 동반 급락하자 시장의 관심이 다시 게임주로 돌아오는 모습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게임주는 지난해말 이후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올 상반기 신작 출시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컴투스, 게임빌, 웹젠 등이 11~15%씩 상승했다.

대체로 국내 게임업종의 주가 상승은 ▲신작 출시 전 기대감 ▲게임 흥행 ▲ 실적 등 세단계 사이클로 이뤄진다.

게임빌은 지난 4월 '제노니아S' 2차 테스트를 완료한 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컴투스는 3분기에 '원더택틱스'를 글로벌 출시할 예정이다.

주요 게임사들은 7월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신작들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게임빌은 1년 넘게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 게임 '별이되어라'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지난달 30일 진행했으며 신작 '제노니아S'의 출시도 임박했다. 컴투스는 자체 개발 역할수행게임(RPG) '원더택틱스'를 2분기 시범테스트를 진행하고 3분기에 글로벌 출시할 예정이다. 선데이토즈는 3분기에 캐주얼퍼즐게임인 '상하이 애니팡', '애니팡 맞고' 등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다.

공영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작 출시 전 기대감이 반영될 때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면서 하반기 모바일 게임 최우선주로 '위메이드'와 '선데이토즈'를 꼽았다. 신작인 위메이드의 '열혈전기'와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맞고'가 흥행 기대감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공 연구원은 "열혈전기는 샨다(GAME US)의 핵심 인력들이 개발에 참여했다"면서 "최근 비공개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3분기 정식 출시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니팡맞고는 9월 출시를 바라보고 있다"며 "국내 하루평균 활성사용자 1위인 애니팡2의 인기에 힘입어 흥행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나태열 현대증권 수석연구원은 "2분기 출시 예정됐던 게임들이 3분기로 출시가 지연됐는데, 3분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회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성빈 교보증권 연구원도 "게임업종이 상반기 주가 부진으로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부담이 덜하다"며 "하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마케팅 강화로 인한 경쟁 심화, 중국 등 각국 업체들의 경쟁력 상승으로 때문에 해외 진출 난조 등으로 상반기 게임업종 주가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업체 중 흥행 게임을 보유해 실적 가시성이 높은 곳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수많은 신규 게임 가운데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임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엔씨소프트는 '아이온 레기온즈', '리니지 모바일' 등을 비롯한 기대작들을 하반기에 출시해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컴투스에 대해선 "히트작 부재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반기 인수합병(M&A)을 통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SNS로 포트폴리오 공유하면 선물 팡팡" KDB대우증권은 '글로벌 두루두루'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KDB대우증권 고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글로벌 두루두루 웹사이트에서 포트폴리오 찾기 체험을 한 후 페이스북 또는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600명에게 어린이 빗길 안전 우산 또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

AJ네트웍스, 코스피 상장 예심 통과

공모절차 후 내달 중 상장

국내 최대 종합렌탈 기업 AJ네트웍스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AJ네트웍스는 지난 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승인'통보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AJ네트웍스는 향후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절차를 거쳐 8월 중 상장될 예정이다.

AJ네트웍스는 지난 2000년 설립돼 2013년 12월 지주회사인 아주엘앤에프홀딩스와 아주렌탈이 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됐다. 지주부문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2위 렌터카 업체 AJ렌터카와 AJ토탈(냉동·냉장 창고업 및 주유소 운영), AJ파크(주차장 운영사업 및 주차관제 시스템 판매사업), AJ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여신전문 및 신기술 금융회사) 등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AJ네트웍스는 물류용 파렛트, IT기기, 고소장비 등에 대해 자산관리 개념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J네트웍스는 기존의 소규모 오프라인 위주였던 렌탈 서비스에 규모의 경제와 온라인 시스템을 접목했다. AJ네트웍스의 렌탈 서비스 대상은 자산에 대한 소유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우선하는 인식 확산과 함께 파렛트, 고소장비로 확대됐다.

/김보배기자

로지시스, 이달 코스닥 진출… "IT 선두주자 될 것"

차별화된 IT 플랫폼 개발 무인경비사업 진출 예고

전산시스템 장비 전문기업 '로지시스'가 이달 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CD·ATM기기 등 금융권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로지시스는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무인경비사업 등 새로운 사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9일 로지시스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왕문경 대표는 "로지시스는 현재 서울, 강원, 경인, 충청 등 전국에 37개 직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콜센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전산장비의 장애이력 관리 등 경쟁력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왕 대표는 이어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권 장애 접수 후 3시간 이내 대응률 95%를 달성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고객 만족도 또한 높다"며 "은행, 제2금융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사를 지닌 데다 국내 은행권 유지보수 수행에 있어 업계 최다 실적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왕문경 로지시스 대표가 이달 말 코스닥시장 상장에 앞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성과와 향후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로지시스 제공

◆ 유지보수에서 판매까지 '원스톱'

로지시스는 지난 1996년 국내 최초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에 뛰어들었다. PC·노트북·모니터·통장프린터·카드전사발급기 등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판매 하고 있다. 전산단말 솔루션과 함께 은행·VAN사의 CD·ATM기기 등 금융자동화기기 관리가 주된 사업이다.

로지시스는 유지보수 사업에서 얻은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2012년부터는 전산장비 판매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정기점검과 자산실사 등을 통해 교체 대상장비 정보 등을 수집, 전산장비 도입 및 교체 기획부터 납품까지 원스톱 형태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

두 개 사업의 시너지 효과로 전산장비 판매 사업은 지난 2012년 21억원에서 2013년 114억원, 지난해 1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판매 매출 비중 또한 2012년 9.8%에서 지난해에는 36.3%까지 대폭 늘었다.

◆파트너 확대·꾸준한 성장세 유지

로지시스는 지난해 매출액 320억2600만원, 영업이익 19억1400만원, 순이익 17억4500만원을 달성했다. 최근 5개년 매출액 연평균성장률(CAGR)은 16.3%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로지시스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지난 2004년부터는 공공기관까지 네트워크를 확대, 40억원 이상 규모의 컨소시엄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우체국 등과 관련 계약을 수주하기도 했다.

◆사업 매출·신규 사업 진출 '기대'

로지시스는 앞으로 무인경비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무인경비서비스란 고성능 감지기가 외부 침입을 감지, 상황실에 이상이 접수되면 전문 보안요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서비스다.

금융권과 VAN사의 무인경비사업 특성상 유지보수 능력 또한 필수적이다. 관련 산업은 연간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왕 대표는 "코스닥 상장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로지시스가 될 것"이라며 "신규 성장 동력인 전산장비 판매 사업과 진출 예정인 무인경비 사업 성장에 힘써 매출 지속 성장을 이루겠다. 믿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보배기자 bobae@

"활로 찾자!"… 한국 수주드림팀, 남미 간다

현대로템, 국토부지원단과 4개국 돌며 시장진출 모색

현대로템은 오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수주지원단과 함께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국을 방문한다고 9일 밝혔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구성된 이번 수주지원단에는 현대로템을 비롯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이 참여했다.

수주지원단은 이번 출장 일정 동안 남미 4개국을 돌며 각국 정부부처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철도사업관련 국내기업들의 수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브라질 살바도르 전동차. /현대로템 제공

특히 수주지원단은 페루 교통통신부장관과 콜롬비아 교통부장관을 만나 국내 기업들의 사업 참여 활로를 열어줄 계획이다. 또 오는 15일에는 브라질 교통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대륙 간 횡단철도 등 주요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페루, 콜롬비아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일 전략이다. 지난 4월에는 중남미 시장 확대를 위해 브라질에 연간 200량의 철도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 건설에 돌입했다.

현대로템은 올해 말 공고 예정인 페루 리마 메트로 3호선과 콜롬비아 보고타 메트로 1호선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페루 투자청은 리마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총 168㎞에 걸친 6개 노선의 신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한다. 페루는 지난해 개통된 1호선에 이어 2호선을 건설 중이다.

오는 10월 이 중 약 50억 달러가 투입되는 리마 메트로 3호선 입찰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리마 메트로 3호선 32㎞ 구간에 투입될 차량과 신호·통신 분야 수주를 노리고 있다.

콜롬비아 역시 보고타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메트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대로템 측은 "남미 철도 시장은 블루오션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철도 관련 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난 10여 년간 브라질에서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남미 인근 국가로의 진출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는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1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국문·영문·중문 3개 국어 버전으로 발간한다.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거둔 다양한 성과들을 정리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성공신화' 한눈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韓·中·美 3개 언어 발간

LG디스플레이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펼친 노력과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014-201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국문과 영문, 중문 등 3개 언어로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경제·환경·사회적 성과를 알리고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LG디스플레이 이해관계자들이 중요성 평가를 통해 선정한 제품, 안전보건, 임직원, 공급망,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 등 6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친환경 제품 인증 7건, 국내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량 총 37만6913tCO2eq(이산화탄소환산기준), 폐기물 재활용률 89% 등 저탄소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공헌 참여 임직원수 총 3만9009명, 사회공헌활동 2906건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앞장서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소통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임직원을 비롯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실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아시아 퍼시픽 부문에 2년 연속 편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사장)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사회에도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문과 영문은 홈페이지(www.lgdisplay.com)에서 열람 가능하며 중문 버전은 추후 게시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삼성전자 '비즈니스 모니터' 친환경 국제인증

전모델 국제인증 획득 B2B시장 공략 고삐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된 '비즈니스 모니터' 전 제품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받고 기업간거래(B2B) 모니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10일 2015년 '비즈니스 모니터' 46개 전 모델(SE200, SE450, SE650, SE650C, UE850)이 세계적인 인증전문 기관인 인터텍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인 '그린 리프 마크'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비즈니스 모니터'는 재활용 소재를 업계 최고 수준인 30% 이상 사용하고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됐다.

특히SE450과 SE650 모델은 모니터 전원을 끈 상태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0.00W(IEC62301 및 EN 50564:2011기준 0.005W 이하)로 줄이는 '에코 파워 오프' 기술이 적용돼 인터텍으로부터 에너지저감 기술을 검증 받았다.

최용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상무(왼쪽)와 김주용 한국 인터텍 사장이 3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R4에서 '비즈니스 모니터' 전 제품에 대한 '그린 리프 마크'수여식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올해 '비즈니스 모니터'는 높낮이와 좌우 회전, 화면 상하 각도 조절뿐 아니라 화면의 가로·세로 조절도 가능해 기업 근무여건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SE200 모델 제외)

삼성전자는 이번 인증으로 기업 고객이 요구하는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B2B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최용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이번 그린 리프 마크 획득을 통해 다시 한번 삼성 모니터의 뛰어난 친환경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친환경 제품 개발을 선도하여 기업 고객의 수요를 충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모니터 판매량은 1억3000만대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B2B용 제품이 5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조한진기자 hjc@

LG전자 'G4 비트' 글로벌 시장 노크

중남미·유럽·亞 순차 출시

LG전자가 'G4'의 보급형 스마트폰 'G4 비트(Beat)'(사진)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G4 비트'를 브라질을 시작으로 중남미, 유럽, 아시아 등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G4 비트'는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5.2인치 풀HD 해상도의 IPS LCD 디스플레이와 1.5GHz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동급 최강의 화질과 성능을 구현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G4 비트'는 컬러 스펙트럼 센서, 고성능 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탑재했다. 이 제품은 'G4'의 전문가 모드와 제스처 인터벌 샷 기능도 탑재했다.

LG전자는 'G4'의 부드러운 곡면과 3D 패턴 디자인을 'G4 비트'에 적용했다. 'G4 비트'는 세라믹 화이트, 샤이니 골드, 메탈릭 실버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은 "G4의 프리미엄 기술을 실속형 제품에 담았다"며 "G4 비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대유위니아 '종합가전사 꿈' 성큼 딤채·에어컨 등 매출 26.3% 증가

'딤채' 브랜드를 앞세워 올해 종합가전사로 도약 의지를 밝힌 대유위니아(대표이사 박성관)가 올 상반기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초 계획했던 연 매출 52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유위니아는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수익성도 같은 기간 39.8% 개선됐다.

특히 에어컨 국내 판매 수량이 지난해보다 64.8% 급증했고, 김치냉장고 딤채 역시 27.7% 고성장을 보였다. 에어워셔와 제습기는 3.5%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가장 큰 폭의 판매 증가를 보였던 2015년형 에어컨은 대기 중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플라즈마 기술 및 스마트 절전 기술을 적용해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대유위니아는 상반기 내 얻은 성장 동력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과 손잡고 향후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스마트 가전 제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양성운기자

"전기차, 3년간 변화 없으면 비전도 없다"

문승일 연구원장 '쓴소리'
충전인프라 집중 투자 등 지원책 손질 필요성 지적

"국내 전기자동차 시장에 향후 3년간 변화가 없으면 비전도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기차를 못 만드는 국가다."

문승일 기초전력연구원장(서울대 공과대 교수)은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원장은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국도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데 반해 우리는 일본처럼 정체돼 있다"며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비전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금 현실은 4년간 2800대에 그쳐 7%대 수준"이라며 "충전인프라 역시 지난해 3만2015기가 보급될 계획이었으나 2679기 보급으로 목표 대비 7%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가 9일 서울 코엑스 회의장에서 연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문승일 기초전력연구원장은 국내 전기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문 원장은 지금의 보조금 지원 대신 충전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전국을 n분의 1로 나누지 말고 지역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양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 지역으로는 서울과 제주, 빛가람 에너지밸리 3곳을 꼽았다.

문 원장은 "엔지니어로서 볼 때 전기차 모터가 기존의 엔진보다 싸다"며 "5만대의 수요가 생기면 지금의 반값에 양산이 가능하고 효과는 2배가 돼 기계차와 경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아차 쏘울 전기차를 타봤는데 이는 기존 차를 개조한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은 아직 전기차를 못 만드는 국가다. 우리는 중국에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계차는 우리가 앞섰지만 전기차는 중국에 뒤처졌다"며 "중국 선전에는 전기택시 100대, 전기버스 700대, 관용차량 500대가 다니고 시내충전소 17곳이 설치됐다. 정부가 나서 제도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계의 이같은 지적에 담당 부처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 제시를 여전히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정부가 나서 법제도와 규제를 현실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입을 모았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국내 전기차가 3년 전 기아 레이 1종에서 현재 6종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현대차에서 전기차 전용모델이 나온다"며 "당초 2020년까지 100만대가 목표였으나 현 정부는 20만대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시 아직은 초보적인 시장형성 단계"라며 "외국은 전기를 그냥 꼽으면 가는데 우리는 누진제로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에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7년까지 어디든 제약 없이 전기차 운행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2016년 전기차 1만대 보급(고속전기차 9900대, 전기버스 100대)과 완속충전기 9900대 제작사 일괄설치, 급속충전인프라 150기(누적 487기) 설치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정흥순 서울시 서울시 대기관리과 과장은 "G밸리를 전기차 밸리로 만들어 입주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서울형 전기차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협회장 김필수)가 주최한 포럼에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매년 정책·기술 분야 정기포럼(연 4회)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기후환경변화 대응과 생태복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주제로 열렸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세빛섬에 100만명 '둥둥'

평일 4500명·휴일 1만명
시민 문화공간 자리매김

효성은 지난 7일 기준으로 세빛섬이 누적 방문객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평일에는 평균 4500명, 주말·공휴일에는 1만명의 방문객이 세빛섬을 찾았다.

세빛섬의 누적 방문객수 100만 돌파는 다양한 이벤트와 야외 활동 덕분이라고 효성은 전했다.

지난 5월 세빛섬에는 기존 운영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올라', '비스타 펍', '채빛퀴진'에 이어 '세빛 랍스터'와 디저트 카페 '세빛 돌체'가 문을 열었다.

또 수상레저 보트 튜브스터도 운영을 시작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세빛섬 야외무대인 예빛섬 미디어아트갤러리에서 정기 영화가 상영된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세빛섬 문화의 날'로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등 세계 유명 작품 등을 상영한다.

이달에는 레스토랑 '채빛퀴진'이 개점 1주년을 맞아 할인·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 방문 고객에게 주중 점심 5%, 주중 저녁과 주말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세빛섬 멤버십 카드 소지자는 추가 할인을 적용, 최대 2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23일에는 모든 고객이 1년 전 가격으로 점심 뷔페를 즐길 수 있다.

/정용기기자 yonggi@

현대重, 1만4000TEU급 컨선 9척 수주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
1조2500억 규모 계약

현대중공업은 덴마크 해운사인 머스크라인으로부터 1만4000TEU(1TEU는 6.1m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을 수주했다.

소렌 토프트 머스크 COO(왼쪽)와 가삼현 현대중공업 그룹선박영업 사업대표(부사장)이 덴마크 코펜하겐 머스크 본사에서 컨테이너선 9척 건조 계약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머스크 제공

머스크는 8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본사에서 소렌 토프트 최고운영책임자(COO)와 가삼현 현대중공업 그룹선박영업 대표(부사장)가 컨테이너선 9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금액은 약 1조2500억원이다. 길이 353m인 선박 9척은 2017년 인도될 예정이다. 9척 외에 추가로 8척을 건조하는 옵션도 계약에 포함됐다.

이번 계약은 머스크의 150억 달러 상당 투자 계획의 일부다.

현대중공업은 2002년 이후 머스크에서 50척 이상의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 5월 말에도 프랑스 선사 CMA CGM으로부터 1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머스크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주를 이어오고 있는데 향후 추가 수주는 아직 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한국타이어, 공기 없이 달린다

친환경 비공기입 타이어 개발
고속·지그재그 등 주행 성공

한국타이어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비공기입 타이어(NPT)인 '한국 아이플렉스'(사진)를 개발해 실차 주행 테스트까지 마쳤다고 9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부터 일반적인 고무 타이어에 사용되는 공기압을 사용하지 않는 비공기입 타이어를 개발해왔다.

이번에 선보인 한국 아이플렉스는 실제 승용차에 장착해 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까지 실현한 점이 특징이다.

한국 아이플렉스는 최근 한국타이어가 시행한 주행시험에서 전기자동차에 장착돼 내구성·강성·안전성 시험, 지그재그 주행 등과 함께 130km/h에 이르는 고속 주행을 통과했다.

이 타이어는 제품의 설계·생산단계서부터 에너지 소비와 유해물질 사용을 줄인 우레탄 유니소재로 개발됐다.

보통 8단계에 걸쳐 만들어지는 타이어 제조 과정을 4단계로 대폭 단순화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단일 소재로 개발돼 재활용이 쉬워 미래형 친환경 타이어로 주목받고 있다.

서승화 한국타이어 사장은 "고속 주행이 가능한 한국 아이플렉스를 개발한 것은 그동안 R&D에 아낌없이 투자를 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타이어와 미래형 타이어 개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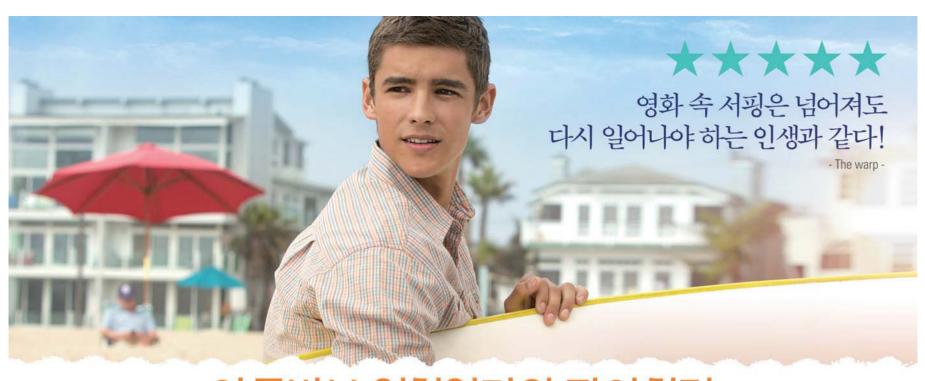
페라리 공식수입사 FMK
김광철 대표이사 선임

페라리·마세라티 공식수입사인 ㈜FMK는 9일 김광철 사장(59·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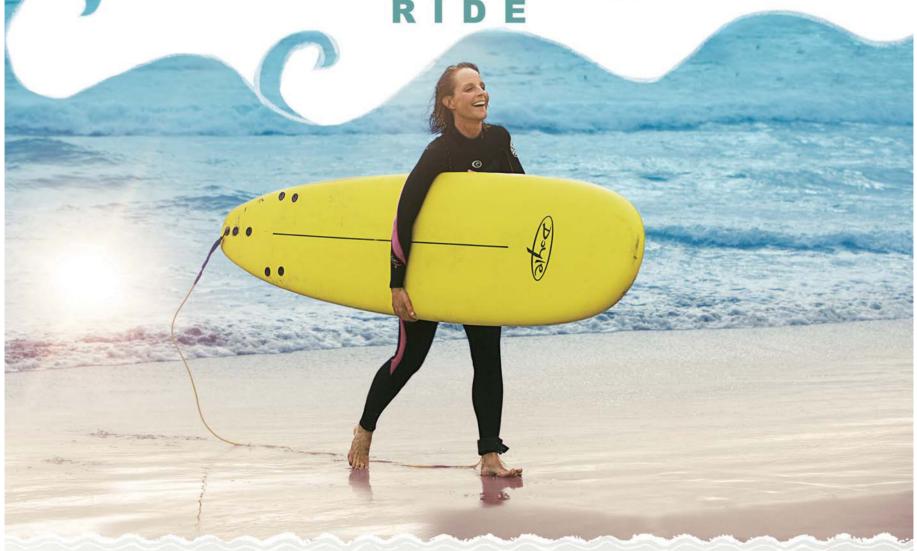
FMK에 따르면 김 사장은 25년간 수입자동차 업계에서 볼보자동차세일즈, BMW코리아 세일즈 및 마케팅 임원을 거쳐 2005년 더클래스효성㈜에 입사했다. 더클래스효성㈜와 효성토요타㈜, 더프리미엄효성㈜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김 사장은 수입차 업계의 1세대이자 메르세데스-벤츠, 토요타 두 브랜드를 국내에 안착시킨 전문가로 통한다.

전문경영 이외에도 영업, 기획, 마케팅 등 다방면의 경험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며 효성그룹이 자동차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는 데 공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필기자

아들바보 억척엄마의 자아찾기

라이드
:나에게로의 여행

RIDE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헬렌 헌트

〈더 기버:기억전달자〉 브렌튼 스웨이츠

7월 16일 대개봉!

ULTRAMEDIA |감독/주연|헬렌 헌트 |수입/배급| tcast cinecube |15세 이상 관람가| SIX SALES

SKT, 기업용 데이터상품 선보여

'비즈 데이터 서비스' 출시

SK텔레콤이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기업 고객의 데이터 수요를 해결하는 기업용 데이터 상품을 선보인다.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기업이 데이터를 다량 구매하고 이를 임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즈 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비스는 50GB부터 500GB까지 총 4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용량에 따라 93만5000원부터 297만원까지 책정됐다.

비즈 데이터 서비스 구매 기업은 임직원에게 100MB 단위로 법인·개인 명의 스마트폰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공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다양한 데이터 기기에서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서비스 구매 기업은 원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일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직무를 수행 중인 임직원에게 그에 맞는 데이터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임직원 전원에게 데이터 300MB를 모바일 동영상 직무교육을 위해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이 많은 일부 임직원에겐 데이터를 수시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비즈 데이터 서비스 구매는 SK텔레콤 법인고객센터(1599-6011)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경기자 hm0108@

벤츠 E시리즈, 리콜 국내 1위

상반기만 3만4756대
C클래스도 1659대
"품질 개선 신경 안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받은 총 5건의 시정조치(리콜) 중 4건은 E시리즈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는 총 3만4756대가 리콜돼 국내 수입차 업체 중 가장 많았다.

이 기간 E시리즈는 3만783대, C시리즈는 1659대가 리콜 됐다.

반면 BMW는 1만238대가 리콜됐다.

월별로 나눠보면, 지난 2월 벤츠 E220 모델은 엔진 커버가 엔진 배선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발견돼 총 1만4341대가 리콜 됐다. 또 C·E시리즈, CLS 등 11차종은 뒷좌석 벨트 잠금장치 결함으로 강한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벨트 잠금장치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 문제로 총 1152대가 리콜 됐다. 이 중 C·E시리즈는 각각 81대, 1040대였다.

벤츠 E220 블루텍.

3월에는 E시리즈·CLS 등 총 13차종이 1만6504대 리콜 됐다. 이유는 엔진룸의 고무 실링 이탈될 수 있어 고온 부위와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E시리즈는 4월에는 C220·E220 블루텍 등 총 11차종이 1572대 리콜 됐다. 엔진 타이밍벨트 장력을 조절하는 텐셔너의 결함에 따른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유였다. 이 중 C·E시리즈는 각각 391대, 877대였다. 이 중 E220 블루텍은 올해 상반기 2115대가 판매돼 베스트셀링카 9위에 오른 모델이다.

또 C200 모델 1187대는 연료탱크에 장착된 연료 공급라인 결함으로 시동이 꺼지는 등 사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리콜 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입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이어 터지는 리콜 문제는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며 "업체들이 자발적 리콜을 한다지만 이것은 생산시 품질 개선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SK C&C, 광주U대회서 감동스토리 찾는다

'SK행복장학 프로그램' 마련

SK C&C는 지난 3일 개막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맞춰 대학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수들의 감동 스토리를 전파하고 있다.

9일 SK C&C(대표이사 박정호)에 따르면 SK C&C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한국체육기자연맹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하기 위해 'SK행복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SK행복장학 프로그램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마련된 후원 행사다.

프로그램의 응모 사연들은 하나같이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스토리를 담고 있다. 언론에 소개된 사연만 20여개로 모두가 가난·재해·병마·차별 등의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젊은 영웅들이다.

이들 중에는 찢어진 운동화를 꿰매 신고 출전한 육상 선수, 가족 생계를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출전한 태권도 선수, 팔꿈치 부상과 암을 이겨낸 펜싱 선수, 청각 장애를 극복한 사격 선수들이 있다.

SK C&C는 광주U대회 조직위와 언론을 통해 소개된 감동 스토리에 대해 'SK행복장학 프로그램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skhappinessscholarship)을 통해 진행되는 네티즌 투표와 전문가 심사, 기자단 투표를 종합해 13일 대상자들을 선정,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정문경기자

단통법 위반 이통 판매점 과태료 부과

방통위, 민원 접수된 판매점 대상 위법행위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 21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지난 2월부터 민원,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5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오인광고·공시지원금 초과 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조사했다.

50개 판매점 중 단통법을 위반한 21개에 대해 각각 50~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사실을 알리고 8월에는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을 오인케 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KT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사 집결"

'5G 연구개발센터' 개소

KT(회장 황창규)는 서초구 우면동 KT우면연구센터에서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사들이 집결한 '5G 연구개발(R&D) 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5G R&D 센터는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알카텔루슨트, 화웨이, ZTE 등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사들과 양해각서 체결과 공동협력 선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구축한 대규모(300평)의 5G 테스트 인프라다.

KT는 센터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사 소속 연구원 및 엔지니어들과 이곳에 모여 ▲밀리미터파 ▲다중입출력 ▲고집적 네트워크 ▲차세대 네트워크 구조 ▲모바일 엣지 컴퓨팅 등 5G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비롯해 다자간의 기술공유와 상호협력(MOU)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KT는 그 동안 실내에 국한되어 왔던 5G 테스트 환경을 실제 필드 기술 검증까지 가능하도록 강남 일대에까지 5G 테스트 클러스터를 확대해 모바일 트래픽이 집중되는 도심 환경에서의 5G 기술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동면 KT 융합기술원 원장은 "그 동안 대한민국 통신 선도 사업자로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이끌어온 KT는 이번 '5G R&D 센터' 개소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함께 5G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범 서비스하여 대한민국의 ICT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시내 면세점 오늘 발표… 동대문 최대 관심

철통보안 속 신경전… 대기업 3곳·中企 4곳 선두그룹설
낙찰 1순위 이부진의 HDC신라, 독과점 논란 속 이목집중

재벌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던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결과가 10일 발표되며 업체들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은 9일 서울 지역 면세점 후보 3곳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10일 오전 제주 후보 1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5시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통신과 인터넷 등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차단한채 신규 면세점 허가에 도전하는 24개 사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이중 대기업군 2곳과 중소·중견기업 1곳 등 서울지역 3곳,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제한 입찰인 제주지역 1곳을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한다. 심사위는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위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에서 선발된 민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심사는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5분간 사업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사업계획 발표)을 하고 심사위원들이 20분간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젠테이션에는 기업마다 3명만 참가할 수 있다.

발표를 마친 업체들은 기출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관세청이 ▲면세점 입지의 유리함 또는 차별성 ▲교통과 주차 문제 ▲독과점 이슈 ▲상생 등을 심사 요건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후보군 중 HDC신라면세점·신세계·현대DF 등 3곳이 선두그룹을 형성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SK네트웍스와 한화갤러리아가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도 나온다. 중소·중견기업 후보군 중에서는 하나투어·유진기업·그랜드관광호텔·파라다이스 등 4곳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번 면세점 입찰 경쟁에서 최대 관심은 격전지 동대문과 면세점 낙찰 유력 후보이자 독과점 논란의 대상인 HDC신라의 운명이다.

동대문은 롯데피트인, 헬로 apM, 맥스타일, 제일평화시장, 케레스타 등 5곳이 입지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중원면세점, 한국패션협회, 그랜드관광호텔, 키이스트, 제일평화시장 컨소시엄, SK네트웍스 등이 동대문 상권에 뛰어들면서 누가 상생의 깃발을 꽂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곳은 10만명이 넘는 상인과 수천 개에 달하는 봉제 공장, 패션왕을 꿈꾸는 수많은 가난한 신진 디자이너의 삶의 터전이다.

면세점 낙찰 1순위로 꼽히는 호텔신라의 운명도 주목받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경영능력을 검증할 시험대라는 분석과 함께 용산 입지 등을 배경으로 유력시되고 있지만 롯데면세점(60.5%)에 이어 서울 시내 면세점 점유율 26.5%로 독과점 논란에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제시한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과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과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다단계 판매원 수당 편중현상 여전히 '심각'

공정위, 109곳 정보공개
후원수당 지급 총액 증가

다단계 판매업자 수와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판매원의 수당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9개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4년도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2010년 67개 이후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매출액 역시 2007년 이후 계속해 늘고 있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 시장 총 매출액은 4조4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늘었다. 특히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3조3322억원은 전년보다

<후원수당 지급분포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후원수당 판매원 수령분포	총 지급액(단위: 백만 원)		1인당 평균 지급액(단위: 만 원)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상위 1% 미만	779,465	709,038	5,864	5662
상위 1%이상–6% 미만	393,264	343,810	588	547
상위 6% 이상–30% 미만	223,335	189,303	70	63
상위 30% 이상–60· 미만	47,691	37,703	12	10
상위 60% 이상–100%	18,697	12,736	3.5	2.5

2088억원 증가했다.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1조4625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지만 상위 판매원의 수당 편중 현상은 여전했다. 상위 1% 미만(1만3292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864만원이었지만 나머지 판매원 99%(132만여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2만원에 불과했다.

총 등록 판매원 수는 689만명으로 전년대비 20.4% 증가했다. 이중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는 134만명으로 전체 판매원수 대비 19.4%를 차지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취급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 판매원 지망자 등에게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물품 구매 시 믿을 수 있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원 가입 시 왜곡된 정보 전달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홈플러스 명동점, 마더케어 오픈 홈플러스(대표 도성환)는 홈플러스 영등포점에 강서점에 이은 두 번째 마더케어 매장을 개장했다고 9일 밝혔다. 마더케어는 유아동 전문브랜드이다. 홈플러스는 마더케어 영등포점 오픈을 기념해 22일까지 인기 아이템 판매와 한정 수량 특가 기획전을 진행한다. /홈플러스 제공

CJ그룹, 내수 경기 살리기 앞장

협력사 납품대금 7600억원 조기지급

CJ그룹(회장 이재현)은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 중소 협력 업체들의 원활한 현금 흐름을 돕기 위해 이달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CJ제일제당 등 10개 주요 계열사와 협력하는 중소 납품업체 2만여 곳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급 규모는 약 7600억원으로 계열사별 기준에 따라 기존 지급일보다 평균 한달 가량 선 지급된다.

CJ그룹은 이와 함께 임직원들의 국내 여행을 적극 권장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연중 상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여름철에 집중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들도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협력업체 등과 연계해 전국 주요 CGV 극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직원들이 사업장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료의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롯데하이마트, 노인복지관에 에어컨 13대 전달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는 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무더위 쉼터' 에어컨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세완 롯데하이마트 영업본부장(사진 왼쪽)과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실장(오른쪽), 홍희자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장(가운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가 준비한 총 2000만원 상당의 에어컨 13대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무더위 쉼터 11곳에 설치된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5월 삼성 에어컨 판매액 일부를 적립한 기부금으로 이번 기증품을 마련했다.

오비맥주 '카스' 인도차이나 공략 나선다

AB인베브 유통망·공장 활용
내년부터는 현지서 생산 판매
아세안 FTA로 면세 혜택도

오비맥주(대표 프레데리코 프레이레)가 모기업인 AB인베브의 유통망과 공장을 활용해 대표 제품인 카스를 인도차이나에 판매한다.

9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내달부터 카스를 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에 수출한다.

우선은 국내에서 생산한 카스를 수출해 판매를 시작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AB인베브 베트남 공장을 활용해 카스를 현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카스를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할 때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도차이나 반도 내 국가들 사이에는 면세 혜택이 제공된다. 이럴 경우 운송비용 절약은 물론 환율상승 등의 리스크가 줄어듦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AB인베브는 지난 6월 베트남에 맥주 공장을 설립했다. 이 맥주 공장은 호치민 북쪽 빈주엉주(Binh Duong province) 지역의 10만㎡ 부지에 설립됐으며 연간 약 50만 헥토리터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다.

오비맥주의 이번 인도차이나 반도 수출은 카스를 수년 내 아시아 톱 10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오비맥주는 기존 제조업자개발설계 방식 위주에서 올해부터는 카스나 더 프리미어 오비와 같은 오비맥주 브랜드 수출을 2배 이상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 35세 이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이 많아 맥주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대종 오비맥주 해외영업본부장은 "인도차이나 반도 시장은 매력적인 맥주 시장이지만 환율 리스크가 적지 않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모회사인 AB인베브의 현지 공장과 유통망 활용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롯데월드몰에서 캠핑체험 하세요 롯데월드몰에서 텐트·타프 등 캠핑용품은 물론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등 다양한 캠핑장비를 한번에 체험할 수 있는 '캠핑 페어(Camping Fair)'를 연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 26일까지 진행된다. /롯데월드몰 제공

아웃도어 6개 중 1개 '발암물질' 검출

국립환경과학원, 일상품 검사
프라이팬도 10개당 4개 꼴

국내 아웃도어 제품과 프라이팬에서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됐다.

9일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이 2013년 국내 일상용품 300점을 온·오프라인에서 무작위로 구입해 과불화합물(PFOS와 그 염·PFOSF)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웃도어 제품은 6개 중 1개꼴로, 프라이팬은 10개당 4개꼴로 과불화합물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등산 재킷의 경우 PFOA(퍼플루오로옥타노익 애시드)라고 불리는 유해물질이 kg당 0.0128㎎에서 0.0944㎎까지 나왔다.

프라이팬에서도 19개 샘플 중 7개에서 과불화합물이 검출(36.8%)됐다.

이마트몰에서 판매하는 주물다이아몬드 프라이팬(PFOA 0.0123㎎), G마켓에서 판매하는 쿡웨어 프라이팬(PFOA 0.043㎎) 등이 포함됐다.

PFOA는 아웃도어 의류 방수처리에 쓰는 물질이다. 2006년 이후 폐암 간암뿐 아니라 뇌분비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유럽연합 각료 이사회는 지난 4월 PFOA 단계적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반인들의 혈액 속에 PFOA 수치가 계속 검출되는 것을 이유로 환경보호국(EPA)이 8개 제조사를 설득해 감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대체 물질 개발을 독려하고 PFOA 사용을 줄여왔는데 올해 말까지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대체물질을 개발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규제기준이 없다보니 일상용품에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관련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태다.

/박상길기자 sweatsk@

6.5도 카스레드, 영하 50도 혹한 속 몽골인 사로잡다

16년간 철저한 현지화 전략
프리미엄 맥주 이미지 구축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마트. 고객들이 오비맥주의 카스레드(6.5도)와 카스(4.5도)를 자연스럽게 바구니에 담는다. 시원한 맥주 한잔으로 하루의 피곤함을 씻어내기 위해서다.

7월 계절상 완연한 여름에 해당하는 몽골의 한낮 기온은 영상 33도까지 오른다. 일몰 시각은 저녁 9시 반쯤으로 10시가 넘어도 어둡지 않아 한낮의 열기는 늦은 밤까지 이어진다. 저녁 7시 도심 아일리쉬펍에서도 카스와 카스레드를 마시는 몽골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몽골에서 카스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수입맥주로 통한다. 오비맥주가 몽골에 카스를 처음 선보인 것은 1999년으로 벌써 16년의 시간이 흘렀다.

현지 유통사인 '카스타운'의 이윤세 이사는 "2000년 이전만해도 몽골의 맥주시장은 자체 브랜드는 물론 수입 맥주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며 "카스의 몽골진출 이후 독일, 러시아 맥주 등이 속속 진출하며 맥주의 저변이 확대되는 등 몽골의 맥주시장 역사가 카스와 함께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몽골에 진출한 카스는 현지 프리미엄 맥주 시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의 마트에서 몽골 소비자가 카스 맥주를 고르고 있다. /오비맥주 제공

실제로 카스는 1999년부터 2003년 몽골 맥주 시장 진출 초기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했다. 당시 '맥주는 카스'로 통할 정도였다.

카스의 진출 이후 몽골에는 맥주시장이 형성됐고 생그로(Sengur), 보리고(Borgio)와 같은 로컬맥주가 생겨났다. 여기에 과거에 없던 관세에 투그릭-달러 환율 급등으로 수입맥주인 카스의 가격은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로컬맥주는 시장에 안착했다. 이로 인해 카스는 입지는 사실상 좁아졌다.

그러나 카스는 몽골 맥주 역사의 시작이며 여전히 몽골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는 대표적 맥주다. 연간 780만 상자 규모의 몽골 맥주 시장에서 수입맥주 비중은 약 28% 정도다. 오비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수입맥주 중 1위다.

오비맥주의 이 같은 성공에는 현지화 전략이 주효했다. 몽골의 날씨는 6~8월을 제외하면 기온이 영하 50도까지도 내려가는 혹한이 이어진다. 이러한 날씨의 영향으로 몽골인들은 보드카, 위스키 등 고도주를 선호한다.

오비맥주는 이러한 몽골인들에 맞춰 알코올 도수가 높은 6.9도짜리 카스레드를 앞세워 시장을 공략했다. 몽골 내 소매점이나 일반 식당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도 카스레드로 오비맥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다.

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카스 희망의 숲'은 몽골 현지 유통회사인 카스타운과 함께 몽골 내 판매금액의 1%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모아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에르덴솜 지역에 2020년까지 1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대규모 환경개선 프로젝트다.

/울람바토르=정은미기자

올 초복엔 '전복'이 대세

보양식 찾는 2030 급증

13일 초복을 앞두고 전복·장어 등 수산물 판매가 급증했다.

9일 SK플래닛 11번가(대표 서진우)가 최근 2주간(6월25~7월8일) 보양식 재료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복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5% 급증했다. 장어 매출도 전년에 비해 223% 늘었다.

보양식품 구매 연령층도 젊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장어를 구매한 20~30대 소비자 비중(52%)은 40~50대(46%)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소비자들이 구매한 장어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28% 급증했다. 또한 건강즙, 비타민 등 간편 보양식 구매자 101% 증가했다.

김용수 수산물 담당 상품기획자(MD)는 "장어는 그동안 온라인몰에서 비인기 상품이었지만 최근 집에서 바로 요리가 가능하도록 손질한 제품이 많아지고 현지에서 방금 산 것처럼 싱싱하게 배송해주면서 새로운 보양식 다크호스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넉넉하게 즐기는 DIY 아메리카노

푸르밀 '카페베네 블랙'

1000㎖ 대용량 사이즈 출시
얼음·우유 등 취향별 희석

푸르밀(대표 남우식)이 2015년 신제품으로 카톤팩 형태의 1000㎖ 대용량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카페베네 블랙'(사진)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카페베네 블랙'은 얼음이나 우유, 찬물에 희석해서 음용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아이스커피를 직접 제조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제품이다.

푸르밀 '카페베네 블랙' 제품 1개 제품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200㎖ 아메리카노를 5잔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얼음이나 찬물을 넣어 아이스 커피로 즐기거나 우유를 넣어 아이스 카페라떼로 즐길 수도 있다.

카페베네 매장에서 사용하는 100% 아라비카 원두와 원두 분쇄 후 6시간 이내에 추출한 드립식추출액을 사용한 설탕 무첨가 제품으로 커피의 향과 맛을 최대한 살렸다.

푸르밀 관계자는 "'카페베네 블랙'은 카페전문점에서 느낄 수 있는 고품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간편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음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편의점이나 할인점에서 접할 수 있도록 대용량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푸르밀은 '카페베네 블랙' 외에도 신제품으로 컵커피 '카페베네 에스프레소(200㎖)'와 멸균팩 제품인 '카페베네 마일드라떼(200㎖)', '카페베네 마일드모카(200㎖)' 등을 출시했다. 카페베네 블랙은 편의점, 할인점 등에서 만날수 있으며 권장소비자가격은 3000원 이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투명·설측교정… 가지런한 치아로 '감쪽' 변신

닥터 Q&A

Q. 치아교정, 티 나지 않게 가능한가요?

A. 치아교정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랜 치료기간과 치아교정장치의 외부 노출로 인한 사회생활의 불편입니다. 치아의 자연스러운 조직 변화를 유도하는 치아교정치료의 속성상 어느 정도의 치료기간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정장치의 노출에 관해서는 치료장치의 발달로 티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투명교정과 치아 안으로 장치를 붙이는 설측교정이 있습니다. 설측교정 장치는 교정력을 전달하는 매개인 브라켓을 치아의 안쪽에 장착함으로써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설측교정은 아무래도 치아 안쪽으로 장치가 장착되므로 발음이나 혀의 불편감등이 있지만 이것도 장치의 사이즈를 대폭 줄인 장치들이 개발되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측교정 방식으로 수술 영역에 있던 윗턱뼈부터 튀어나온 골격성돌출입과 거미스마일, 무턱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치아교정법(킬본 KILBON)도 가능해졌습니다.

송정우 원장
(센트럴치과 서울시청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대한치과교정학회 정회원
대한소아치과학회 정회원
대한심미치과학회 정회원
RWISO(Roth Willams International Society of Orthodontists) 정회원
– Roth Williams course 수료 / RWKSO 정회원

또 다른 방법은 투명교정입니다. 투명교정의 치료과정은 우선 입안의 치열에 관한 데이터를 채득하여 외부에서 3차원적으로 미리 원하는 위치로 교정을 해 투명한 틀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투명틀을 일정시간 착용하여 치아가 움직이도록 합니다. 투명교정의 가장 큰 장점은 교정하는 과정 중 일정시간 동안 투명한 치아교정틀을 장착하면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불편이 훨씬 덜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열을 움직이는 양에 있어서는 부착식의 교정장치와 와이어를 이용한 치아교정보다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요즘은 3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치제작의 발달로 치료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치료의 영역도 점차 넓어져 많은 케이스의 치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리=최치선기자 chisunti@

"몇 인분이건 드신만큼 더 포장해 드려요"

강강술래, 이달 말까지 1+1 썸머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1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문한 양만큼 무료 포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상계점(02-935-9233)은 소고기류(술래·강강·왕양념갈비·한우스페셜·한우모둠구이)를 시키면 한우양념불고기를, 돼지고기류(한돈·돼지양념)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양만큼 나갈 때 포장해 준다.

시흥점(02-808-1888)은 소고기류(술래·강강양념·한우갈비살)를 시키면 한우양념불고기를, 돼지고기류(한돈·돼지양념·생고기한판)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준다.

신림점(02-886-9233)도 소고기류(술래·강강양념·왕양념·본갈비·한우스페셜·한우모둠구이)를 시키면 한우양념불고기를 포장 증정한다.

한편 청담점(02-3443-3392)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술래정식·민속양념정식을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제공한다.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본갈비·술래양념·일품양념·민속양념 구이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더 주며, 한우갈비살 주문 시 테이블당 한우육회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정은미기자

관광公, 안전한 수학여행 정착 앞장

청소년 위한 가이드북 발간
초·중·고 1만1600곳에 배포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최근의 메르스 확산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안전한 수학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안전 수학여행 가이드북'을 발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약 1만1600개소)에 배포한다.

가이드북의 1장에서는 수학여행 안전운영 매뉴얼과 교통, 체험활동, 숙소·음식, 화재예방 등 수학여행 관련 안전 파트를 정리했다. 또한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2장인 수학여행 추천코스 파트에서는 전국을 6개 권역(수도권·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으로 나눠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핵심 코스 45개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수학여행 코스를 기획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천코스의 지도와 여행 동선이 세부적으로 들어 있다. 방문하는 장소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전팁도 함께 수록됐다.

안전 수학여행 가이드북 샘플 이미지.

관광공사 정병옥 국민관광복지팀장은 "일선 학교에서 안전 수학여행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한다면 수학여행이 한층 더 안전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수학여행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치선기자

새마을금고 '에너지 절약' 팔 걷었다

개인 냉방기기 금지 등
9월 30일까지 캠페인

새마을금고는 여름철을 맞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발맞춰 환경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엘리베이터를 2개 이상 보유한 회관은 사무실 출퇴근과 점심시간에 1대를 정지시켜 시간제로 운행키로 했다.

개인용 냉방기기(선풍기 등) 사용도 금지하며 사무실 실내온도는 26~28도 내외로 유지한다.

또 점심시간과 야간에는 일괄 소등하되 필요부분만 점등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고,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7~19시)에는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다.

이밖에 퇴근시간 1시간 전에는 냉방을 정지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프린터 등은 전원차단을 생활화 하기로 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2009년부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여름철이면 정장 대신 쿨맵시 티셔츠를 입고 근무 하고 있다.

캠페인은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 선도

20㎝ 거대 근종 제거 등
고난도 수술 잇단 성공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 문혜성 센터장과 이사라 교수(산부인과)가 잇단 고난이도 산부인과 로봇수술에 성공해 우리나라 산부인과 영역의 로봇수술을 이끌고 있다.

문혜성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이 최근 로봇수술을 통해 20㎝크기의 거대 근종 제거 수술에 성공했다. 문 센터장은 미혼인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자궁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로봇수술을 통해 거대 종양을 제거했다.

문 센터장은 "복강경을 이용한 거대 근종 제거술은 배 안에서 복잡하게 얽힌 혈관들 때문에 출혈이 많아 수술 시야 확보가 힘들고 수술 후 로봇수술보다 자궁의 기능 보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로봇수술은 절개와 함께 지혈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정교한 움직임을 통해 봉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혜성 교수가 싱글사이트 로봇수술을 하고 있다.

센터는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국내외 의료진에게 전수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치선기자

star bag

中 톱스타와 호흡

배우 **이정재**가 중국의 톱스타 **종한량**과 함께 한중 합작영화 '역전의 날'에서 호흡을 맞춘다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9일 전했다. 종한량은 훤칠한 외모와 섬세한 연기력으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는 중국을 대표하는 배우다. 영화는 오는 7월 말 크랭크인한다.

늦깎이 대학생 변신

배우 **최지우**가 오는 8월 방영 예정인 tvN 새 금토드라마 '두번째 스무살'에 출연한다. 19세에 덜컥 엄마가 된 주인공 하노라가 서른여덟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다. 드라마는 남은 주조연을 캐스팅한 뒤 7월 중순 첫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힙합 신성들의 만남

가수 **크러쉬**가 그룹 블락비 멤버 지코와 함께 한 새 싱글 '오아시스(Oasis)'를 9일 정오 발매했다. 한국 힙합계의 신성으로 불리는 두 뮤지션의 만남으로 기대가 높은 곡이다. 신곡과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서는 동갑내기 친구인 크러쉬와 지코의 호흡을 확인할 수 있다.

한중 합작 오디션 MC

걸스데이 멤버 **유라**가 한중 합작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아이돌'의 MC로 선정됐다. 유라는 '슈퍼아이돌'에서 한중 연습생들의 경합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연습생들에게 미션을 선사하는 등 조력자 역할도 함께 할 예정이다. 14일 MBC 뮤직과 MBC 에브리원에서 첫 방송된다.

연기도 삶도 더 도전적이고 싶어요

영화 '손님' **천우희**

천우희(28)에게 2014년은 잊지 못할 한 해였다. '한공주'에서 보여준 열연에 대한 호평은 시작에 불과했다.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 소식이 이어졌다. 그 정점은 제35회 청룡영화상이었다. 여우주연상 수상자로 호명된 천우희는 무대 위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기쁨을 넘어 진심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었다.

2015년 천우희는 신작 '손님'으로 다시 관객과 만난다. 지난해 11월에 개봉한 '카트' 이후 8개월여 만의 신작이다. 청룡영화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뒤 개봉하는 첫 작품이다. 천우희의 연기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거운 이유다.

'손님'은 1950년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한 마을을 배경으로 이곳에 찾아온 떠돌이 악사 우룡(류승룡)과 아들 영남의 이야기를 그린다. 천우희는 이들 부자와 가까워지는 여인 미숙을 연기했다. 한국전쟁으로 남편과 아이를 잃은 과부인 미숙은 신내림을 기다리는 선무당이다. 외지에서 온 우룡과 영남을 만나면서 잠시나마 마을에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만 그 순간 미숙은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10대 학생 역할을 주로 연기한 천우희에게 '손님'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시대극도 과부 역할도 처음이었다. 출산과 육아의 경험이 없었기에 부담도 됐다. 그러나 촬영 초반 미숙이 영남을 안아주는 장면을 연기하면서 부담을 떨쳐냈다. 오히려 더 큰 고민은 미숙의 캐릭터가 영화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천우희는 "심플하고 표면적으로 연기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 과부이자 선무당 캐릭터 완벽연기
> 신들린 연기 후 분위기 싸해 '흡족'
> 늘 고된 역할 고민됐지만 자부심도

배우로서 아쉬움도 없지는 않다. 영남과 미숙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장면들이 편집된 것이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천우희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미숙이 신내림을 받는 순간 천우희가 보여주는 연기는 그야말로 경이롭다.

"무당에 대해 조사를 많이 했어요. 접신하는 순간을 담은 영상도 찾아봤고요. 하지만 우리 영화는 무당이 하는 일을 재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연기하자는 생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촬영장에 갔어요. 연기를 마치고 나니 주변 공기가 싸하더라고요. '내 연기가 괜찮았구나' 싶었어요(웃음)." 그렇게 천우희는 자신만의 인장을 영화 속에 확실하게 새겼다.

천우희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8월에는 '뷰티 인사이드'가 개봉하고 나홍진 감독의 '곡성'도 후반작업 중이다. 현재는 박흥식 감독의 '해어화'를 촬영하고 있다. 모두 다 쉽지 않은 캐릭터들이다. "언젠가 '나는 왜 항상 고된 길을 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는 사람으로부터 '너에게 그만큼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믿고 맡기는 것'이라며 슬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자부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표현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됐죠."

천우희는 "20대를 늘 주저하며 보낸 것 같아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연기만큼은 늘 과감하게 도전했지만 일상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수더분한 성격이라 혼자 여행가는 것도 미루다 보니 어느 새 20대 후반이 됐네요(웃음)." 연기도 삶도 보다 도전적이 되는 것, 30대를 앞두고 있는 천우희의 꿈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전주리)

장동우·김성규·키·루나 등 아이돌 총출동

뮤지컬 '인 더 하이츠' 9월4일 개막

인피니트 멤버 장동우·김성규, 샤이니의 키, 엑소의 첸, 에프엑스의 루나 등 아이돌 스타들이 국내 초연되는 브로드웨이 라이선스 뮤지컬 '인 더 하이츠'(이지나 연출·원미솔 음악감독)에 총출동한다.

뮤지컬 '인 더 하이츠'는 뉴욕의 라틴할렘인 워싱턴 하이츠가 배경. 그 곳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애환을 긍정적인 유머로 승화한 작품이다. 랩·힙합·스트릿 댄스 등 그 동안 뮤지컬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21세기형 뮤지컬로 평가받아 왔다.

하이츠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것을 꿈꾸는 희망의 청년 우스나비 역에는 배우 겸 힙합 가수 양동근, 뮤지컬 배우 정원영, 샤이니의 키, 인피니트 랩퍼 장동우가 출연한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니나 역에는 뮤지컬 배우 김보경과 에프엑스의 루나가 더블 캐스팅됐다.

니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콜택시 회사에서 일하며 니나와 사랑에 빠지는 베니 역에는 뮤지컬 배우 서경수, 인피니트 보컬 김성규, 엑소의 첸이 출연을 확정했다.

뮤지컬 '인 더 하이츠'는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공연된다. 문의: 1588-5212

/김민준기자 mjkim@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샤이니 키, 인피니트 김성규, 에프엑스 루나, 인피니트 장동우.

배신, 야망, 그리고 체스

6/11 2PM LAST TICKET OPEN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협력연출|유병은 |협력안무|홍유선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조윤형 |기술감독|이유원 |제작감독|김완식

|제작|(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kibo 기술보증기금 |협찬|KDB산업은행 |홍보|SHOWHOLIC |예매|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메르스 여파 6월 고궁 관람객 '반토막'

이달 무료개방 후 다시 늘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지난달 고궁과 능원 관람객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9일 "지난 6월 궁능원 관람객은 47만8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1.2% 감소했다"며 "월별 관람객수로는 2013년 1월 이후 최저치로 전월에 비해서도 72.5%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관람객수는 6만2000명으로 2011년 2월 이래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메르스 여파로 방한 외국인이 급감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7월 들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한 뒤에는 궁능원 관람객수가 증가했다. 7월 첫째 주 현충사와 칠백의총을 제외한 문화재 관람객은 전주에 비해 약 53만명 늘어난 15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16.3% 줄어든 수치다.

고궁과 능원 관람객수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종묘와 조선왕릉, 현충사·칠백의총을 찾은 사람을 합해 산출한다. /김민준기자 mjkim@

서태지 음악, 뮤지컬로 재탄생

소설 '페스트'가 원작
박칼린 연출로 내년 무대

서태지의 음악이 박칼린(사진)의 손을 통해 뮤지컬로 재탄생한다.

뮤지컬 제작사 스포트라이트는 "서태지의 음악으로 만드는 창작 뮤지컬 '페스트(La Peste)'의 연출을 박칼린이 맡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페스트'는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를 서태지의 노래가 가사 그대로 살려 엮어낸 작품이다. 2016년 LG아트센터에서 초연될 예정이다.

특히 공연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박칼린이 연출을 맡아 관심이 모아진다. 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시작한 박칼린은 현재 뮤지컬 연출은 물론 대형 국제행사 개·폐막식 총감독, 버라이어티 공연, 넌버벌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공연 연출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뮤지컬 음악 감독 출신의 연출가가 참여하는 만큼 서태지의 음악에 대한 분석과 배려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칼린은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와 평소 좋아했던 서태지의 음악으로 만드는 창작 뮤지컬의 연출을 맡아 정말 기대되고 행복하다"며 "원작과 음악의 장점 두 가지를 모두 잘 살려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태지는 "박칼린씨의 참여로 작품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을지 궁금하다. 특히 음악감독 출신 연출가라서 음악에 대한 드라마적 해석이 더욱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뮤지컬 '페스트'는 갑작스런 전염병으로 예측 불허의 사건들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과 휴머니즘을 주제로 삼는다. 오는 8월 전 배역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도 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생존을 위해 뭉친 올드보이들

◆ SBS '정글의법칙 in 얍'

금요일 오후 10시

평균연령 39.5세의 6인의 병만족이 얍에서의 생존에 도전한다. 지난 주 방송에서 얍을 강타했던 태풍은 지나갔지만 병만족에게는 또 하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 멤버들끼리만 남겨지게 된 것이다. 반강제로 '올드보이' 특집이 된 병만족 사이에서 79년생인 류담은 졸지에 막내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6명의 올드보이들은 섬에서의 생존을 위해 의리로 뭉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KBS2 '오렌지 마말레이드'

금요일 오후 10시 35분

뱀파이어와 인간이 평화협정을 맺은 300년 전의 조선시대에서 다시 현재로 이야기가 돌아온다. 마리는 재민을 사이에 두고 아라와 묘한 삼각관계를 시작한다.

◆ tvN '오 나의 귀신님'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봉선의 몸에 갇힌 귀신 순애는 친아버지와 우연히 마주친다. 자신의 빈자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버지의 기사식당을 보자 죽기 전 기억이 떠오른다.

◆ SBS '오 마이 베이비'

토요일 오후 5시

시골 생활 중인 리키김과 태남매가 이번엔 씨암탉 키우기에 도전한다. 태오는 아빠와 함께 닭장 만들기에 푹 빠져 고사리 손으로 한 몫 거들기에 나선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1일 (토)	12시 10 국악한마당 13시 0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16시 10 징비록 (42회) (재) 18시 00 동행 19시 10 다큐 공감 20시 00 광복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21시 40 징비록 (43회) 0시 00 콘서트 7080	11시 20 후계자 (1회) (재) 12시 40 개그 콘서트 (재) 14시 15 슈퍼맨이 돌아왔다 17시 5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시 55 파랑새의 집 (41회) 21시 15 연예가 중계 22시 2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1회) 23시 30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12시 10 무한도전 스페셜 15시 45 쇼! 음악중심 16시 55 우리 결혼했어요 18시 25 무한도전 (436회) 20시 45 여자를 울려 (25회) 22시 00 여왕의 꽃 (35회) 23시 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0시 40 라디오스타 스페셜	14시 30 런닝맨 (재) 15시 40 아빠를 부탁해 (재) 17시 00 오!마이 베이비 18시 25 놀라운대회 스타!킹 20시 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시 00 너를 사랑한 시간 (5회) 23시 10 그것이 알고 싶다 24시 10 심야식당 (3·4회)	12시 00 최고의 요리비결<신효섭의 더위잡는 비결>(종합1~5) (재) 15시 50 청춘! 세계도전기 (재) 17시 50 장학퀴즈 (961회) 18시 40 한국기행 (종합 1~2) (재) 20시 15 다문화 고부 열전 (재) 21시 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종합 1~3) (재) 22시 35 장수의 비밀 (재) 23시 05 세계의 명화 <돈키호테>	11시 30 비정상회담 (53회) (재) 13시 20 사랑하는 은동아 (13회) (재) 15시 55 냉장고를 부탁해 (34·14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20시 40 사랑하는 은동아 (14회) 21시 5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3회) 23시 00 엄마가 보고있다 (12회) 0시 20 김제동의 톡투유 스페셜 (10회)
12일 (일)	12시 10 전국노래자랑 13시 20 스카우트 2 (9회) 15시 00 징비록 (43회) (재) 16시 05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여기는 광주 18시 00 열린 음악회 21시 40 징비록 (44회) 22시 30 역사저널 그날 24시 00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하이라이트	13시 1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1회) (재) 14시 20 파랑새의 집 (재) 16시 50 해피선데이 (549회) 19시 55 파랑새의 집 (42회) 21시 20 개그 콘서트 (804회) 22시 55 다큐멘터리 3일 23시 55 오렌지 마말레이드 (10회) (재)	12시 10 출발! 비디오 여행 13시 15 화정 (25·26회) (재) 15시 45 섹션 TV 연예통신 16시 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20시 45 여자를 울려 (26회) 22시 00 여왕의 꽃 (36회) 23시 15 시사매거진 2580 0시 05 경찰청 사람들 2015 (재)	12시 10 너를 사랑한 시간 (5회) (재) 13시 15 가면 (재) 15시 40 SBS 인기가요 16시 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시 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시 00 너를 사랑한 시간 (6회) 23시 10 SBS 스페셜	12시 30 극한 직업 (재) 13시 20 명의 (재) 14시 15 일요시네마 <백 투 더 퓨쳐> 16시 45 세계의 눈 17시 35 세계 테마 기행 (종합 1~4) (재) 20시 15 EBS 다큐 프라임 (종합 1~3) (재) 23시 00 한국영화특선 <빗속의 연인들>	13시 20 썰전 (123회) (재) 16시 1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3회) (재) 17시 25 님과 함께 시즌2 -최고의 사랑 (10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20시 40 닥터의 승부 (183회) 21시 50 김제동의 톡투유 (11회) 23시 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7회)

투수 2명 대주자 기용… KBO리그 최초

스포츠 주간 해프닝

한 경기에 투수 2명이 대주자로 기용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롯데 자이언츠는 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홈 경기에서 7-8로 뒤진 12회 말, 투수 2명을 연속해서 대주자로 기용했다.

선두타자로 나선 내야수 최준석이 볼넷으로 출루하자, 이종운 롯데 감독은 발이 느린 최준석 대신 젊은 투수 박세웅을 대주자로 내세웠다. 후속타자 박종윤이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나자, 이 감독은 김대륙 대신 정훈을 대타로 내밀었다. 정훈은 중전안타를 쳤다. 그러나 그는 종아리 부상 때문에 정상적인 주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감독은 고육지책으로 정훈을 빼고 대주자로 베테랑 투수 이정민을 투입했다.

투수가 대주자로 등장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한 경기에 2명의 투수가 대주자로 나선 건 한국프로야구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이 감독의 작전은 박세웅의 홈 스틸 실패로 빛이 바랬다.

4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LG트윈스와의 경기에 난입한 관중이 홈스틸을 시도하고 있다. /TV캡처

홈스틸을 시도한 관중

프로야구에서 그라운드에 난입한 관중이 홈스틸을 시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4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LG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삼성의 공격 차례인 7회 말 1사 후 난데없이 한 관중이 관중석을 넘어 그라운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 관중은 모든 이들의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경기장을 누볐고, 경기 진행 요원이 말리려 달려들자 잽싸게 피한 뒤 홈을 향해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대담함을 선보였다. 덕분에 경기는 10분 넘게 지연됐다. 그러나 홈스틸에 성공했는지 기분이 좋아진 관중은 직원들에게 끌려가 그라운드 밖으로 퇴장 당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웃음을 지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니 리(25·이진명)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그린 브라이어 클래식에서 로버트 스트렙(미국)이 퍼터 대신 웨지로 퍼팅에 성공하는 묘기를 선보였다.

스트렙은 6일(한국시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의 올드화이트 TPC(파70·7287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 9번홀에서 퍼터를 캐디에게 건네다 떨어 뜨려 손상시키는 바람에 후반 9홀을 샌드웨지로 퍼팅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1,13,16,18번홀에서 버디 5개를 잡는 반전을 이끌어냈다. 스트렙은 특히 13번홀에선 무려 9m 거리의 장거리 버디 퍼트를 웨지로 집어 넣었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강정호·추신수 2루타 합창

강정호(27·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적극적인 주루로 2루타와 득점을 만들며 멀티히트를 작성했다.

강정호는 9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에서 4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 2루타 1개 포함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멀티히트는 지난달 26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 12경기 만이다. 연속 안타는 4경기째 이어졌다. 시즌 타율은 0.259에서 0.263으로 올랐다.

0-2로 뒤지던 2회말 첫 타자로 나온 강정호는 샌디에이고 선발 앤드루 캐시너의 첫 5구를 지켜보면서 풀카운트를

만든 다음 파울에 이어 7구째 시속 155㎞짜리 속구를 받아쳐 중견수 방면으로 타구를 보냈다. 샌디에이고 유격수 알렉시 아마리스타가 슬라이딩하면서 공을 잡으려다 놓친 사이 강정호는 2루까지 내달렸다.

프란시스코 세르벨리의 내야 땅볼 때 3루로 진루한 강정호는 페드로 알바레스가 좌익수 뜬공을 치자 홈으로 쇄도했다.

4회 유격수 뜬공, 7회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강정호는 4-2 역전에 성공한 8회말 2사 1, 2루 네 번째 타석에서 1타점 좌전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5-2로 승리한 피츠버그는 5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부터 5연승을 달렸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해 2루타 한방으로 타점 2개를 기록했다. 4타수 1안타를 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30(296타수 68안타)으로 약간 올랐다. 하지만 텍사스는 4-7로 패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요정 손연재 마지막 담금질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하는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9일 오후 전남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볼 연기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목 다친 매킬로이, 디오픈 기권

축구를 하다 발목을 다친 세계골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사진)가 다음 주에 개막하는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오픈(공식 대회명 디오픈)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매킬로이는 9일 트위터에 "많은 생각 끝에 디오픈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 재활을 하고 있지만 몸상태가 100%일 때 대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다.

매킬로이는 지난 5일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 처음에는 디오픈 출전을 강행하려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상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디오픈은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린다. /김민준기자

오늘의 광주 하계U대회 10일

▲수영 = 남자 400m 개인혼영·4×100m 혼계영, 여자 4×100m 혼계영 예선(9시30분) / 여자 50m 자유형 결승(19시) / 남자 50m 자유형 결승(19시6분) / 여자 50m 자유형 결승(19시12분) / 여자 200m 접영 결승(19시18분) / 여자 800m 자유형 결승(19시45분) / 남자 400m 개인혼영 결승(20시17분) / 여자 4×100m 혼계영 결승(20시47분) / 남자 4×100m 혼계영 결승(20시57분·이상 염주 실내수영장)

▲육상 = 여자 창던지기 본선A(9시) / 남자 800m 1라운드·여자 3단뛰기 본선A&B(10시) / 여자 창던지기 본선B(10시30분) / 남자 200m 준결승(17시20분) / 남자 높이뛰기(18시) / 남자 200m 결승(18시20분) / 남자 400m 허들 결승(19시) / 남자 400m 결승(19시30분·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

▲배드민턴 = 남자·여자 단식, 남자·여자·혼합 복식 64강전(9시) / 남자·여자 단식, 남자·여자·혼합 복식 32강전(15시·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야구 = 남자 순위결정전(11시·무등야구장) / 남자 준결승(12시·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 남자 순위결정전(17시·무등야구장) / 남자 준결승(18시·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축구 = 여자 축구 준결승전(11시) / 여자 축구 준결승전(16시30분·이상 나주 공설운동장)

▲골프 = 개인 남자·여자 3라운드(7시) / 단체 남자·여자 3라운드(7시·이상 나주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

▲핸드볼 = 여자 8강전(14시) / 남자 8강전(18시·이상 나주실내체육관·고창군립체육관)

▲사격 = 남자 단체 10m 공기권총 결선(9시) / 남자 개인 10m 공기권총 결선(12시) / 남자 개인 50m 소총3자세 결선(14시) / 남자 더블트랩 금메달 결정전(14시45분·이상 나주 전남종합사격장)

▲탁구 = 여자 단식 예선(10시·15시) / 남자 단식 예선(12시) / 여자 단체 결승(16시30분) / 남자 단체 결승(18시30분·장성 홍길동체육관)

▲태권도 = 남자 58·80kg급, 여자 49·67kg급 예선(9시) / 남자 58·80kg급, 여자 49·67kg급 준결승(13시30분) / 남자 58·80kg급, 여자 49·67kg급 결승(18시·조선대 체육관)

▲테니스 = 남자·여자 단식 준준결승전(9시) / 남자·여자 복식 준결승전(9시) / 남자·여자 혼합복식 준준결승전(9시·이상 진월국제테니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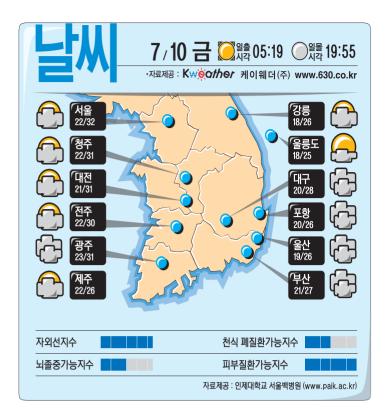
▲배구 = 남자 배구 준결승전(18시·20시·염주종합체육관)

날씨

7/10 금 일출시각 05:19 일몰시각 19:5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2			
		2	9	8	6	1		
6		7				9		2
	9	5				7	3	
3								9
	7	4				6	1	
4		9				8		3
		3	8	4	7	5		
			3		9			

				7				
		1	3		6	7		
	6		9		5		8	
	3	8				4	6	
1				3				8
	7	4				1	2	
	2		1		7		4	
		3	4		2	8		
				5				

스도쿠 정답

9	4	1	5	7	2	3	6	8
5	3	2	9	8	6	1	4	7
6	8	7	4	3	1	9	5	2
2	9	5	6	1	8	7	3	4
3	1	6	7	5	4	2	8	9
8	7	4	2	9	3	6	1	5
4	6	9	1	2	5	8	7	3
1	2	3	8	4	7	5	9	6
7	5	8	3	6	9	4	2	1

4	5	9	2	7	8	6	3	1
2	8	1	3	4	6	7	9	5
3	6	7	9	1	5	2	8	4
5	3	8	7	2	1	4	6	9
1	9	2	6	3	4	5	7	8
6	7	4	5	8	9	1	2	3
8	2	5	1	9	7	3	4	6
9	1	3	4	6	2	8	5	7
7	4	6	8	5	3	9	1	2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China Securities Market Slump Once Again Bubble Breakdown Warning

<중국 증시 또 폭락… 버블 붕괴 경고>

China Securities Market collapsed once again. The term 'Black Friday' was made because of the unchanging downfall of China Securities on Fridays for the past three weeks.

According to the Shanghai News, this day's Shanghai's overall rate ended at 3,507.19 which decreased by 219.93 (5.90%). Shanghai propaganda securities market has also decreased 334.71 points (2.94%) and ended at 11,040.89. China has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as the downfall continued, but there was no improvement.

The day before the downfall, CNN Money reported that China Securities Market bubble collapsing is extremely serious due to the downfall of Shanghai propaganda securities market.

한 달 새 30% 넘게 폭락한 중국 증시의 위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증시로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코스피 2000선이 장중 무너졌다. 9일 오전 현재 서울 외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32.32포인트(1.60%) 떨어진 1983.89를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증시가 또 다시 폭락했다. 중국 증시는 지난 3주 동안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폭락해 '검은 금요일'이란 말이 생겨났다.

지난 8일 상하이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219.93포인트(5.90%) 급락한 3,507.19로 마감했다. 선전성분지수 역시 334.71포인트(2.94%) 폭락한 11,040.89로 마감했다.

중국 당국은 증시 폭락이 계속되자 다양한 대응책을 내놨지만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앞서 전날 미국의 CNN머니는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의 동반 급락으로 현재 중국 증시 버블 붕괴 우려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장 부도·사업 사기… 돈벌이가 갑갑합니다
2016년 관재… 전화위복 삼고 기술자격증 준비

행복추구 남자 71년 8월 9일 양력 14시

Q 저는 2년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출당해 나온 후 봉고차를 렌트하여 과일 노점상을 해보기도 하고 뻥튀기 장사도 하고 붕어빵 장사도 해보았지만 쫓겨 다니고 기존 가게들의 배척으로 돈을 벌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권고로 쇼핑몰 다단계회사에 들어가 600만원을 빚을 내서 직급자로 승급되어 쥐꼬리만 한 수당을 받아 오다가 1달 전에 망해서 문을 닫고 회장이나 사장 이란 놈은 흔적도 없이 사라 졌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도 안 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하나요?

A 2016년에는 관재가 동반되니 이참에 일을 그만 둔 것을 차라리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불교에서 전해오는 말로 남에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는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한 번 뒤 돌아다 보라고 했습니다. 인(因)이 아니면 과(果)일 것이니 인(因)은 내가 어리석어 심은 것이고 과(果)는 노력하여 심은 것이 때가 되어 받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운이 나쁜 사람은 한 가지에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다른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귀하의 경우 비겁(比劫:나와 동급의 오행으로 재산을 탈취함)이 중중(重重)하여 군겁쟁재(群劫爭財:한 개의 재물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격)로 친구의 꼬임으로 손재를 당한 것입니다. 다단계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식상(食傷:내가 생해주는 오행)이 발달하여 언변이 뛰어나야 하며 식생재(食生財:식신이 재물을 생해줌)하여야 하고 인맥이 좋으면서 그들에게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위에 모든 조건에 맞지를 않음에도 돈을 투자를 하였으니 능력에 미치지 못함입니다. 사람 중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행운이 항상 따라 다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노력하지만 언제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 행운은 항상 그들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행운은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행운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성공은 '능력과 행운의 절묘한 조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한 가지 기술자격증을 획득하여 자신만의 특징과 기술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세요. 노력하는 가운데 기회가 올 때 포착하여 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10일 (음 5월 2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겸손하게 처신하세요. **60년생** 모든것에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72년생** 옛날의 악연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84년생** 길에서 돈을 주웠으나 임자가 있는 돈일 것 입니다.

49년생 욕심이 자녀를 잘못 만들 수 있습니다. **61년생**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73년생**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85년생** 대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0년생 추후에 재산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62년생** 투자처를 찾고 있다면 잠시 뒤로 미루세요. **74년생** 주위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안보입니다. **86년생** 이성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51년생 주위에 괜히 스트레스를 부리지마세요. **63년생** 다이어트가 허무하게 끝날 것 입니다. **75년생** 감당하기 벅찬 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87년생** 목돈 들어갈 일이 발생합니다.

52년생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64년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76년생** 집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88년생** 우유부단하면 기회를 잃게 됩니다.

53년생 미련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5년생** 물건을 분실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89년생** 차분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54년생 이기적인 판단은 흉합니다. **66년생** 과소비를 줄이세요. **78년생** 관용을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가정에 큰 경사가 생길 운입니다.

55년생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으세요. **67년생** 욕심을 버리면 위안을 삼을 일이 생깁니다. **79년생**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91년생** 새로운 기운이 집안에 들어옵니다.

56년생 승산이 있는 하루입니다. **68년생**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80년생** 현명함과 총명함이 보입니다. **92년생** 집중해야만 길을 찾게 됩니다.

57년생 지금 추진하는 일은 잘 됩니다. **69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괘입니다. **81년생** 신분에 걸맞는 소망은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93년생** 통이 너무 큰 것이 흠입니다.

58년생 부인은 현모양처의 기질을 발휘할 때입니다. **70년생** 즐겨서 따르게 되는 운기입니다. **82년생** 이미 어려움을 건너 해결된 형국입니다. **94년생** 기분전환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59년생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71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83년생** 재물운과 이성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95년생** 앞길에 어려움이 생겨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삼성홍보의 몰락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삼성이 그동안 내놓았던 갤럭시 S6 판매예측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 장밋빛 전망에 대한 결과가 번번히 어긋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갤럭시S6시리즈의 부진으로 삼성전자가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 또한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당분간 부진 탈출은 쉽지 않아보인다.

갤럭시S6 출시 당시 언론들은 '이재용 폰'이라는 애칭까지 붙여가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은 '갤럭시S6 시리즈를 7000만대 팔겠다'고 공언했다. 업계는 2분기에만 2000만대 판매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잠정실적이 발표되면서 뚜껑은 열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측은 빗나갔다. 7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액 48조원, 영업이익 6조9000억원의 실적을 잠정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낮춰온 시장 컨센서스(추정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갤럭시S6 출하량도 1800만대로 종전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언론의 냉정한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삼성홍보팀의 언론플레이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을 되돌아보려면 냉정한 비판이 필요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쓴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검토했다면 전략수정 등을 통해 현재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을수도 있다. 이 같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보좌가 결국 이 부회장의 리더십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도 갈수록 태산이다. 합병을 둘러싼 반대 의견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기관투자자서비스)가 양사 합병에 반대를 권고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지배구조원)이 역시 합병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국내외 주요 자문기관 대다수가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배구조원은 다른 자문기관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서 결정됐다는 것이다. ISS 역시 지난 3일 의견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2위 의결권 자문기관인 글래스루이스와 국내 자문 컨소시엄 기관인 서스틴베스트까지 주요 자문기관 4곳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여기에 캐나다 최대 연기금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도 양사의 합병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연기금 가운데 합병 반대 결정을 내린 것은 CPPIB가 처음이다.

현재 합병에 찬성하는 지분은 삼성그룹 우호세력 19.8%, 합병에 반대하는 쪽은 엘리엇과 일성신약, 네덜란드연기금 등 9.6%다. 외국인 26.41%, 소액주주 24.4%, 국내 기관투자가 11.1%, 국민연금 11.2%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단일주주로 최대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김철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우호지분(19.8%)에 비해 엘리엇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지분이 26.7%나 존재해 합병이 쉽지 않다"면서 "해외 소송까지 갈 경우 잠재적 비용 부담이 커져 삼성 측이 합병을 포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합병이 무산된다면 삼성물산 주가가 현재보다 40%가량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번 합병의 정당성 확보 문제로 지적되는 가장 큰 요인인 이 부회장 승계에 따른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는 삼성측의 입장이다. 반면 SK는 지배구조를 단순화 하면서 통합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합병을 추진했기 때문에 모든게 순조로웠다. 지배구조를 단순화 한다는 전제를 알고도 찬성했다. SK측은 합병으로 그간 최태원 회장→SKC&C→SK㈜→사업자회사로 연결되는 복잡한 지배구조가 최 회장→합병회사→사업자회사로 간결하게 개편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SK그룹 계열사 대다수의 성적이 부진했다. 이 상황에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발표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삼성이 합병을 성사시킨다해도 불씨는 남는다. 향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합병안에 가결한 것이 문제가 될 경우 이 의결에 관여한 관계자는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장

화장품 상장 열풍이 반가운 이유

기자 수첩
김 수 정
<생활유통부 기자>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화장품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10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토니모리는 지난 1~2월 진행된 일반공모 청약에서 771.0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의 수요예측에서도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3만2000원에 결정됐는데 이는 해외 진출 성공 레퍼런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토니모리는 지난해 205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토니모리가 높은 평가를 받자 하반기 주자로 나서는 네이처리퍼블릭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연내 상장을 목표로 오는 8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효과에 힘입어 적자에서 탈출했다. 2009년 론칭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적자에 시달려왔으나 지난해 23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매출도 2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 성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상장을 토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토니모리만 해도 중국에 300억원을 쓰겠다는 통 큰 공약을 내걸었다. 네이처리퍼블릭도 연말을 목표로 중국 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추진 중이다.

업체들의 상장이 반가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국내 화장품 시장은 겉으로는 중국발 특수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라는 2강 체제가 굳어진 탓에 중소업체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들었다.

대기업은 자본을 이용해 매장을 넓히고 브랜드 규모를 키워왔지만 중소 업체나 브랜드숍 후발주자들은 마케팅 등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ODM(제조업자 개발생산) 업체들이 있어 시장 진입 장벽은 낮지만 사실상 수익을 내기는 힘든 구조인 셈이다. 상장은 이들에게 '디딤돌'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2강 체제가 깨지고 다강 체제가 오는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社說

동요하는 중국증시 파장

중국 증권시장이 동요하고 있어 세계가 불안해 하고 있다. 9일 주가가 큰폭으로 반등해 폭락사태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최근 중국 증시의 잇단 하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가 요동치고, 국가부도지표도 상승세를 보였다. 지구촌 시대이니 각국 증시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어진 상황이어서 중국 증시의 움직임에 국내 증시가 흔들리는 것 역시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중국증시가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앞다퉈 진단과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명쾌하게 전망하기 어렵다. 중국 증시의 폭락사태를 보면서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닮아간다는 성급한 비관론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중국정부의 안정 대책이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에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경제와 증시에 거품이 끼었다는 관측도 있어 걱정된다. 중국정부가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증시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경우 초래될 경제적 파장에 특히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중국의 거품이 빠지고 경제적 체력까지 흔들린다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법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는 올 들어 몇 차례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창궐 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렵다. 수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화장품을 비롯한 우리나라 소비재의 중국 수출이 비교적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중국증시의 동요가 혹시 중국경제의 침체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자들은 중국의 증시와 경제가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심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정부당국과 업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현대車, 북미서 쏘나타 14만대 리콜

소비자 119

안전벨트 잠금장치 결함

현대자동차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앞좌석 안전벨트 잠금장치(버클) 문제로 쏘나타 약 14만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4월25일부터 12월4일 사이에 생산된 쏘나타 2015년형 모델이다.

안전벨트 끝의 고리(텅) 부분이 잠금장치에 비스듬히 끼워지면 벨트가 걸려 길이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벨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 문제로 인한 사고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현대차는 리콜 대상 차량의 안전벨트 잠금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해 줄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산차 업체의 리콜 대수는 한국지엠이 21만7884대로 가장 많았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와 올란도 등 3개 차종 9만9985대를 브레이크 호스 누유로 리콜하고 말리부와 알페온 등 7만8615대를 안전벨트 결함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다.

현대차는 5만6311대를 리콜해 2위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아반떼(3만6259대)와 그랜저 하이브리드(1만604대), 제네시스(5002대), i30(4446대) 등 4개 차종을 리콜했다.

기아자동차는 봉고3 1.2t(4만7347대), 쏘울(6374) 등 5만3721대를 리콜해 3위에 올랐다.

르노삼성자동차는 SM5 등 2만8073대를 리콜했다.

쌍용자동차는 올해상반기 리콜 차량이 없었다.

/정용기기자 yonggi@

세계 최고의 호텔그룹 윈덤이 선택한 "산소도시 태백" 강원라마다 호텔 & 리조트 객실등기 분양

세가지 혜택을 모두~잡아라!

5년후 원금보장
+α까지 되는 호텔
객실당 실투자 2천만원대

아빠가 호텔을 샀어요

올 여름 휴가는 우리 호텔에서 보내요. **2천만원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Hot!**한 수익형 호텔 그리고 별장까지 !

업무제휴사 **고정고객 확보**	분양가 **9천만원** 실투자 **2천만원대**	**3년 수익금** 약 2,400만원 **즉시 지급**	**5년후 원분양가 환매보장**	잔금납입 즉시 이전등기 **계약즉시 수익발생**	국내 체인 라마다호텔 **연10일 무료이용**

관광인프라 강원랜드, 워터월드, 365 세이프타운 테마파크, 레이싱파크, 하이원 스키장, 오투리조트(스키장, 골프장) 등

교통메리트 영동선, 태백선, 영동 및 중앙고속도로, 국도 31, 35, 38호선, 정선·태백 주요 관광지 리무진버스 운행

사계절수요 태백고원자연휴양림, 황지연못(낙동강발원지), 검룡소(한강발원지), 태백산 눈축제 등 365일 다채로운 축제

특급부대시설 국내 최대 야외 글램핑장, 테디베어 갤러리, 야외 레스토랑 , 야외 바비큐장, 야외 수영장, 카바나존

365세이프타운 테마파크

테디베어 갤러리운영 컨벤션 (1, 2, 3층)

테디베어 MOU

여행사 MOU

수익안심 보장제도
- ☑ 계약즉시 수익지급
- ☑ 5년 후 원분양가+α로 환매 조건

청약방법
- · 외환은행 630-009601-061 · 청약금 :100만원
- · 예금주 :(주)생보부동산신탁 ※미 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환불됨.

분양문의 02)756-2000

| 운영사 (주)산하HM | 분양대금관리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 |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주)도모건축 | 시행사 (주)월드스포츠

※생보부동산신탁은 상기 '수익금 지급 및 관리'와 무관합니다.

■대지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4-10 외 ■대지면적 : 7,186㎡(컨벤션 및 기타부지 제외) ■건축규모 : 15,133.58㎡(지상면적 14,186.06㎡ / 지하면적 947.52㎡)
■시설규모 : 객실 305실, 10개동(동당 30~31실) ■객실타입 : Standard 177실, Deluxe 90실, Suite 28실, 단체실 10실(총 305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및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